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島 서우젯소리 研究

指導教授 金 榮 敦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邊 聖 久

1986年度

濟州島 서우젯소리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邊 聖 久

指導教授 金 榮 敦

1986年 月 日

邊聖久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6年 月 日

目 次

I. 序 言	1
II. 서우젯소리의 性格	4
III. 서우젯소리의 類型	9
1. 巫儀型	9
2. 遊戲型	12
3. 勞動型	15
IV. 서우젯소리의 形式	17
1. 歌唱形式	17
2. 律格構造	23
3. 反復技巧	29
V. 서우젯소리의 內容	34
1. 恨풀이	35
2. 神풀이	41
VI. 結 語	46
o 參考文獻	48
o Abstract	51
o 活用資料 目錄 및 蒐錄文獻	55
o 附 錄	57

I. 序 言

서우젯소리는 濟州島 전역에서 전승되는 民謠의 한 類型¹⁾으로 다른 민요와는 유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곧 서우젯소리 特有的 특성으로는 傳承의 다양성, 巫儀
와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서우젯소리는 일반서민들이 즐겨 놀면서 부를 뿐만 아
니라, 巫俗儀禮의 <석살림>에서 심방에 의해 불리고, 또한 그 가락이 김매는 노래로
도 전용되어 일부 지역에서 불리고 있다.

본래 서우젯소리는 巫儀式에서 부르는 놀이무가²⁾로 旋律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구성진 점으로 해서 민간에 전승되어 민요화한 것이다. 지금도 전문적 직능자인 심
방에 의해 神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석살림> 祭次에서 춤과 함께 불려지고 있
다. 이때 가창 전승되는 서우젯소리는 神놀림이라는 呪術宗教的 機能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일반서민들에 의해 가창 전승되는 서우젯소리는 呪術宗教的 機能은 상
실되고 오직 가락을 중심으로 즐겨 놀면서 불려지고 있다. 서우젯소리가 일부지역
에서 김매는 노래로 불리는 것은 그 가락이 빼어나 助興的 機能이 두드러지기 때문
인데, 이는 특이한 傳承樣相이다.

이상의 특성을 통해 볼 때 서우젯소리는 共時的인 면에서는 巫儀 傳承으로는 機
能謠요, 民間傳承으로 보아서는 非機能謠이고 通時的인 면에서는 機能謠가 非機能
謠化한 民謠라 볼 수 있다.

濟州島 民謠에는 本土에 전하지 않는 특유의 자료가 전승되어 일찍부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고³⁾, 그 결과 다른 지방보다 비교적 활발히 자료집이 발간되
고⁴⁾,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자료 수집과 연구가 勞動謠나 童謠에 대해서는 상당

1) 金榮敦, “城邑民謠의 實相”, 제주대학교논문집 제20집, 1985, p. 21.

2)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 213.

3)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도서출판 조약돌, 1983, p. 1.

4)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秦聖麒, 「남국의 민요」, 正音社, 1977.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1, 1983.

한 성과를 거두었으나⁵⁾ 儀式謠나 비기능요인 唱民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서우젯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는 부수적으로만 이루어졌고⁶⁾, 民謠와 巫歌 연구의 보조 자료로 활용⁷⁾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전승의 多樣性, 語源과 形成母胎의 不確實性 등 서우젯소리가 지닌 特性에서 기인한 결과로 본다.

本稿는 기존 자료의 정리, 새로운 자료의 수집·분석에서 출발하여 서우젯소리의 實相을 파악하고자 한다. 완벽한 實相 파악은 서우젯소리가 巫俗信仰 및 일반 서민 생활과 직결되며 口傳되는 口碑傳承物이기에 民俗學的·文學的·音樂的 側面的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다른 측면은 先學들의 연구를 기다리며 筆者는 서우젯소리가 서민들이 향유하는 서정장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文學的 側面에서 實相 파악에 접근하려 한다. 따라서 本稿는 傳承樣相에 따라 서우젯소리의 性格을 분석하고 類型을 분류한 후 硯의상 形式과 內容으로 대별하여 서우젯소리를 고찰하게 된다. 그러나 本稿가 서우젯소리의 實相 파악에 있어 처음 시도되는 기초연구인 만큼 서우젯소리의 文體論的 분석, 수사적 기교와 의미구조 분석과 제주도의 唱民謠와의 비교 연구 등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 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도서출판 조약돌, 1983.
 _____, 「濟州島民謠의 特色」, 제주대학, 1964.
 _____, “童謠”, 「韓國民俗大觀」第6卷,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1.
 _____, “韓國傳承童謠의 傳承變異”, 「李丙驕先生周甲紀念論叢」, 二友出版社, 1981.
 林憲道, “韓國民謠研究”—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檀國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74.
 左永助, “韓國民謠研究”,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 高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5.
 金承泰, “濟州島의 언자매와 그 民謠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尹致富, “韓國 자상가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左惠景, “濟州傳承童謠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6) 「韓國口碑文學大系」上揭書 3권에 수록된 제주도민요 총 378편 중 서우젯소리는 11편 뿐이다.
- 7) 金榮敦, “戒邑民謠의 實相”, 上揭書, pp. 20~22.
 玄容駿, “濟州島의 영등굿”, 「韓國民俗學」(創刊號), 韓國民俗學會, 1969.
 김성례, “제주도 심방의 치병의례에 대한 연구서론”, 「濟州島研究」 1집, 濟州島 研究會, 1984.

筆者는 本稿에서 기존 조사 자료 23편⁸⁾과 筆者 조사 자료 17편 등 총 40편의 各篇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우젯소리 수록 문헌 및 활용 자료 目錄은 附錄 앞에 제시하고, 文獻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는 附錄으로 실었다.

8) 23편에는 고평민님이 조사한 자료 6편이 포함되어 있다.

II. 서우젯소리의 性格

1. 巫歌的 性格

서우젯소리가 일반서민들에 의해 傳承된다는 점은 다른 民謠 類型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현재도 濟州島의 巫俗儀禮⁹⁾에서 傳承된다는 점은 유다른 特性이다.

濟州島의 巫儀는 그 規模에 따라 굿과 <비념>으로 구분되는데, 巫儀(굿)의 한 祭次가 끝날 때마다 神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석살림>¹⁰⁾에서 서우젯소리가 가창된다. 굿을 진행하는 專門的 職能者인 심방은 <석살림>에서 덕담으로 복과 장고를 치면서 祖上분풀이를 唱한 후 축원한다.

조상이 낙(樂)하면 즈손덜도 낙(樂)흥네다. 조상이 놀고가져 흥는다 즈손덜도 놀고가져 흥네다. 어진 조상이랑 신전국 태추태¹¹⁾로 일천간장 풀려놔서¹²⁾

祖上神을 小巫의 伴奏에 맞추어 즐겁게 놀림으로써 일천간장 맺힌 恨을 풀고 떠나 보내려 한다는, 서우젯소리를 부르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上記의 唱에 이어 심방은 祭主의 집 조상이 <선왕분관>인 경우 서우젯소리를 先 唱하면¹³⁾ 患者와 祭衆은 서로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며 후렴을 받는다. 이와 같은 경위로 서우젯소리가 歌唱되는 구체적인 巫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큰굿의 경우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시왕맞이>, <요왕맞이>, <삼공맞이>와 같은 <맞이굿>에서 祭次가 끝날 때마다 <석살림>을 하며 부른다.

둘째 작은굿의 경우는 <두린굿>(추는굿)의 초감제 후 <춤취움>의 祭次에서 患者를 춤추게 하기 위해 부른다.

9) 巫儀로 略하고 굿과 동일개념으로 사용한다.

10)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88~95.

11) 복소리를 일컫는 말이라 하나 未詳.

12) 玄容駿, 上揭書, pp. 92~93.

13) 上揭書, p. 93.

세째 당굿의 경우는 <영등굿>의 <요왕맞이> 祭次에서 부른다. 이상에서 서우젯소리는 唱者가 심방으로 巫儀에서 불린다는 점에서 巫歌의 性格을 띤다.

서우젯소리의 사실에는 巫儀와 관련된 ‘요왕’ ‘서낭(船王)’, ‘영등대왕’ ‘영감’ 등 神名과 巫歌의 특정한 구절들이 상당수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V항목 神풀이 부분에서 상론된다.

일반서민들이 서우젯소리를 일컫는 명칭으로는 <허우땃소리>, <시우젯소리> 외에도 <굿할때부르는소리>, <심방소리>, <서낭소리>라고 흔히 부른다. 이중 ‘서우젯소리’란 명칭이 全島에 널리 알려져 일반화되었으므로 本稿에서 공식 명칭으로 썼다. 그러나 <굿할때부르는소리>와 <심방소리>란 異稱을 통해 굿 즉 巫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방이 부른다는 점에서, 서우젯소리의 사실이 巫歌와 관련있다는 점과 더불어 巫歌의 性格을 지닌 民謠임을 알 수 있다.

서우젯소리가 巫儀에서 歌唱되는 이유와 그 機能을 규명하는 데서 서우젯소리의 巫歌의 性格의 일면을 밝힐 수 있다. 巫儀에서 심방이 歌唱하는 巫歌는 다른 口碑文學과는 다른 呪術的 歌謠다.¹⁴⁾ 심방은 巫歌의 呪力을 통해 神을 請해 좌정시키고 神과 交通할 뿐만 아니라 娛神·送神을 행한다. 심방은 娛神하는 과정에서 <덕담>과 같은 巫歌 외에도 서우젯소리를 부른다. 이같이 神과 人間과의 갈등을 呪術的으로 해결하려는 行爲¹⁵⁾인 巫儀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는 神에 대한 言語的 叙術인 본풀이 사실이 삽입되어 있고 巫樂에 맞추어 춤을 동반하는데, 그 기능은 娛神 즉 神놀림이다. 따라서 서우젯소리는 呪術宗教的인 機能을 띤 機能謠인 儀式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장한 가락을 지닌 서우젯소리가 춤과 동시에 神前에서 口演됨으로써 祭主의 굿하는 목적은 神明의 再生過程을 거치는 가운데 성취된다.

巫儀를 진행하는 심방이나 祭衆은 神놀림을 위해 서우젯소리를 가창한다. 그 결과 神의 怨恨은 해소되고 惡神 또는 疫神은 患者로부터 떠나게 되므로 治病을 이룬다는 관념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治病儀禮인 <두린굿>(추는굿)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의 機能은 영감神에 憑依된 患者의 춤취움, 곧 神놀림에 의해 정상인으로서의 再生을 추구하는 데 있다. 김성례님은 <두린굿>에서 患者의 再生過程을 다음과

14) 張德順 外 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0, p.136.

15) 金起高, “嶺東地方의 歲時風俗에 대한 研究” 「江原民俗學」 창간호, 1983, p.123.

의 民謠임을 입증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2. 遊戲謠의 性格

서우젯소리는 巫儀에서 口演되는 경우 춤이 동반된다. 巫儀의 進行過程에서 巫歌를 唱하던 심방이 가락을 바꾸어 서우젯소리를 先唱하면 祭儀에 참여한 祭衆들이 일어나 小巫들의 악기 伴奏에 맞추어 후렴을 받으면서 일제히 춤을 춘다. 이것은 玄容駿님이 「韓國民俗學」에 발표한 제주도의 <영등굿> 자료에서도 서우젯소리의 集團遊戲謠的인 性格이 드러나 있다.

<씨점>이 끝나면 서우젯소리로 들어간다. 서우젯소리는 낮잡는 노래 이름인데, 이 곡의 흥겨운 가락에 一同이 춤을 춤으로써 神과 사람이 다 즐기는 것이다. (서우젯소리 사설 略. 자료·3 참조) 數十名의 婦女들이 민다당긴다하며 나와서 웃음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실컷 논 후에, 首巫가 村落全體의 吉凶을 신감점으로 점치고 神意를 전달한다.¹⁸⁾ (加點:筆者)

<영등굿>은 集團의 숭배대상인 <영등신>에 대한 共同致祭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耽羅誌등의 기록으로 보아 個人儀禮가 아닌 集團儀禮¹⁹⁾이므로, 이 의례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 역시 集團遊戲的인 特性을 지닌다. 인용문에서 보듯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수십명의 부녀들이 춤을 추면서 즐기으로써 祭儀에서 오는 긴장을 해소시킨다. 서우젯소리의 흥겨운 가락은 춤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여 춤을 통해 巫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것이 일반서민들의 생활속에 전파 확산되어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는 巫儀에서와 같이 노래와 더불어 춤을 즐기기도 한다.

서우젯소리가 巫儀에서든 즐겨 놀면서 부르든 춤을 동반한다는 점은 서우젯소리의 遊戲謠的 性格을 보여주는 것이다.

機能謠의 한 類型으로서의 遊戲謠는 놀이를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²⁰⁾로, 그 놀이는 일정한 形式과 方法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遊戲謠로는 전라

18) 玄容駿, “濟州島의 영등굿” 上揭書, p.132.

19) 上揭書, pp.134~135.

20) 「韓國民俗大觀」 6卷 <口碑傳承·其他>,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328.

도 해안지방에서 불리는 <강강수월래>나 경상도 안동지방에서 전승되는 <뚝다리밟기> 등을 들 수 있다. 서우젯소리에 동반되는 춤은 서민들이 흥겹고 즐겁게 노는 한 方法으로서는 遊戱이지만, 일정한 춤사위 형식을 지닌 놀이로는 볼 수 없다. 巫儀에서 神놀림을 위해 神明나게 추는 춤은 巫樂의 장단에 따라 춤동작의 완급은 있으나 이 역시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舞踊學的 側面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論外로 한다.

서우젯소리는 遊戱謠의 性格을 지닌 民謠이지만, 그 춤으로 이루어지는 遊戱가 生活上의 機能과 遊離되어 있고 일정한 形式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濟州島에는 일정한 遊戱를 하면서 부르는 遊戱謠(遊戱·舞踊謠)가 발견되지 않는 점²¹⁾으로 이루어 機能上 遊戱謠라고는 볼 수 없다.

이상 考察한 바에 따라 通時的으로 볼 때 서우젯소리는 그 巫歌의 性格을 지닌 점에서 巫儀에서 가창된 神놀림이라는 呪術宗教的 機能을 가진 놀이무가²²⁾였으나 가락의 悠長하고 倣어남으로 인해 일반서민에게 전승되면서 그 機能이 상실된 非機能謠로 일반 서민들에 의해 불리는 打令謠²³⁾이자, 歌唱力이 뛰어난 民衆들에 의해 전승되는 唱民謠화된 노래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共時的으로 보면 서우젯소리는 현재 巫儀에서 神놀림을 위해 가창되며 전승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능요의 한 類型인 儀式謠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우젯소리는 그 傳承樣相에 따라 唱民謠이면서도 儀式謠의 性格을 지닌 民謠로 봐야 할 것이다.

2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 上揭書, p. 117.

22) 「韓國의 民俗音樂」 (濟州道民謠篇) 上揭書, pp. 214~215.

23) 「韓國民俗大觀」 6卷, p. 328.

Ⅲ. 서우젯소리의 類型

서우젯소리는 傳承의 多樣性으로 인해 그 機能은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流動的이다.

이에 대해 서우젯소리의 下位類型을 分類함에 따라 異見들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의 綜合的인 理論을 類推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우젯소리는 가락과 기능, 傳承樣相에 따라 類型을 다음의 세 類型으로 分類해 볼 수 있다.

1. 巫儀型

巫儀型 서우젯소리는 巫俗祭儀의 進行 過程에서 歌唱되며, 그 機能은 神맞이 후 춤과 노래를 통한 娛神 즉 神놀림이다. 그리고 巫儀型的 서우젯소리는 現在도 巫俗祭儀에서 傳承되고, 그래서 항상 生成, 發展, 變型되며 享有되고 있다. 서우젯소리가 가창되는 巫儀는 구체적으로 일반곳의 通過儀禮, 治病儀禮, 生産儀禮이며, 당곳으로 雨順風調와 海女 採取物 豐登을 목적²⁴⁾으로 하는 <영등곳>이다.

筆者가 수집한 巫儀型 各篇은 <조상곳>에서 가창된 것 1편, <두린곳>(추는곳)에서 가창된 것 4편, <영등곳>에서 가창된 것 3편으로 총 8편이다. 資料 [4]와 [5]는 영등곳에서 同一人이 가창했지만 <영등곳> 제차인 <씨부림> 祭次 이전과 이후에 가창되었고, 그 辭說도 相異한 점이 많기에 別個의 各篇으로 처리했다. 또한 자료 [6][7][8]의 경우도 <두린곳>이라는 同一儀禮에서 가창되었지만 [6][7]은 男巫, [8]은 女巫가 歌唱했다는 점에서 別個의 各篇으로, 또 [6][7]은 동일인이 가창했으나, 한번의 요란한 춤이 절정에 이른 다음 재차 가창되고 그 內容 또한 相異하기에 別個의 各篇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資料整理에 있어서는 現場論的 生動感과 立體感을 살리기 위해 歌唱樣相을 요약 제시하여 歌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4)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上揭書, pp. 12~13.

1.1. <祖上굿>에서 가창

(1) 어야에어야어야	어야로방에	이구십팔	열오십설에
일월이놀자	제석이놀자	감태ㄴ뜬	절박머리
삼만관수가	놀고가자	골골산산이	흐터놓앙
짐선달은	홍배일월	원액흐던	조상이여
일월조상에	놀고싶소	[칭취불능]ㄴ뜬	일월이여
산신일월에	놀고갑서	[中略]	
산신백관에	놀고갑서	마까후예 토시연분	칙장낭에
김녕이라	송동기영감	용도머리	놀던서낭도
봄을받은	조상이여	ㄴ친	간장이랑
충청도여산	광청고을	다풀려놉서	예-
여동지침	뎃님애기		[자료·1]
신오원은	열사흘날		

1.2. <영등굿>에서 가창

(2) 아어야어기여차	살강깃소리로	[中略]	
일천간장을	다풀려놀자	영자야화장아	도물체도사공
동의와당	광덕왕놀자	가늌사공	깃사공아
서의와당	광신요왕놀자	요항에라근	물실러라
남의요왕은	광덕요왕놀자	장항에라근	장실러라
북의요왕은	흑이요왕놀자	푸나무장작	뎃싹실코
요왕황제국	태조님놀자	항구존들로	선창존들로
동경국대왕	다놀고가자	가자가자	어서가자
영등대왕님	어서놉서	강남천조국으로	돌맞어가자
영등대왕이	어서놀저		[자료·3]

1.3. <두린굿>(추는굿)에서 가창

(3) 어기여차	살강기로	제주나는	고동생복
일천간장을	다풀러놀자	우미진각	ㄴ득실코
진바당에 랑	진소리로놀고	산으로가면	초기진 상
쫄른바당에 랑	쫄른소리로놀자	중으로가면	댕유지실코
천금상에	대왕이놀면		[中略]
백금상에	요왕이놀고	산천도종고	항구도종고
수정국대왕이	놀고자하면	포구도존닐로	배질하라
수정국부인도	다놀고가자	북남동너덜	노는덜로
동경국대왕도	놀고자하면	북남동너덜	노는덜로
지경국부인도	놀고나가자	스물흔설	울어가난
	[中略]	선주도움고	사광도우네
이벨이벨	영이벨홀때람		[자료·6]
상선무어	다려보내자		

곳의 원래적인 機能은 ‘治病’ 또는 ‘恨풀이’였다.²⁵⁾ 그러므로 巫俗儀禮인 곳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는 곳의 기능 실현을 위한 노래로써 그 機能은 神놀림에 있다. 노래를 불러 神을 즐겁게 하고 神을 놀림으로써 산사람의 ‘恨풀이’와 ‘治病’이라는 目的을 달성한다.

巫儀型 서우젯소리의 各篇마다에는 諸神의 나열과 더불어 ‘일천간장 다풀러놉서’와 神名을 부르고 ‘놀자’, ‘놀고싶소’, ‘놀고갑서’, ‘놀다가자’라는 辭說이 共通的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辭說들이 가창되는 일차적인 목적은 神놀림이지만 실상은恨맺힌 ‘인간놀림’인 것이다. 바로 巫儀를 진행하는 심방은 물론 여기에 참여한 祭衆과 患者의 놀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심방은 祭儀에 초청된 神의 本(내력)과 祭衆의恨맺힌 사연을 노래함으로써 神과 人間의恨을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祭衆과 患者는 生活의 神明을 얻게 되고 再生産的인 힘을 축적²⁶⁾하게 되는 것이다.

例謠 (1)은 祖上神인 송동지영감 또는 광청애기씨의恨맺힌 사연을 노래하고 諸神을 놀려 ‘일천간장’을 품으로써 곳의 목적인 治病을 달성하고 있다. (2)는 諸神과

25) 文武乘, “濟州島 곳의 演劇性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p. 25.

26) 上揭書, p. 26.

漁業에 관련된〈영등신〉을 놀리고 祈願과 送神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3)은 恨만한 神의 의탁으로 精神的인 病을 얻은 患者의 治病을 위한 〈두린굿〉에서 불리는 노래로써, 患者의 恨만한 삶의 樣相을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神=患者의 관계에서 神을 이탈시키고 있다. 즉 神=患者의 융합관계이므로 患者의 춤은 곧 娛神이며 설움의 표출인 것이다.

이상 巫儀型 서우젯소리는 신놀림-解恨-送神-神明획득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심방은 神의 본풀이뿐만 아니라 서우젯소리의 唱者이며, 또한 神을 놀리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巫儀型에는 본풀이 사실이 상당수가 轉用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巫儀型은 長篇을 이루며 서사적인 경향을 띤다. 다만 〈두린굿〉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에는 敘事的인 性格 외에 患者의 恨만한 生活이 적나라하게 表現되어 聽者로 하여금 痛도질은 悲哀를 느끼게 한다.

2. 遊戲型

遊戲型 서우젯소리는 수집된 40篇중 31편으로 80%에 달한다. 서우젯소리를 대표하는 遊戲型은 일반민중들이 정사스러운 일이 있어 즐겨 놀거나, 作業後 遊戲를 즐길 때 주로 불리는데, 그 機能은 遊興 高調 및 餘興의 再生으로 悲痛한 生活에서 가슴에 맺힌 恨을 푸는 데 있다.

(1) 아하야아두야도	하나로놀자	싸는물에는	닷을깡긴다
흔믈랑	놀당도가곡	[中略]	
흔믈랑	춤추자	어기여차	소리에
이물에는	이사공아	닷깡겨	노는소리
고물에는	고사공아	어양두양	어기여도
허릿대밧되	화상아야	상사대로	놀고가자
물매점점	늦어나간다		[자료·11]
드는물에는	닷을주고		
(2) 어향어향도	어향어향	흔믈랑	놀고가져
어향어향도	상사디어	흔믈랑	자고나가져

전성곳이	날난어멍	놈난시에	나도나쥬
놈난날에	나도나나쥬		[자료 · 13]
놈난날에	나도나고		

(3) 에헤에야	어허허어요	뒷이망에는	흑사초롱
어허차소리에다	서우젯소리로놀고놀자	망만부튼	소패립에
산으론가민은	산신서낭	깃만부튼	도폭입고
바다론가민은	용궁서낭	흔뽀뽀	곰방대에
	[中略]	삼동초를	피어물고
아끈물에다	놀던서낭	훤훤즈룩에	불을싸인
한물에다	놀던영감	어뜩하민	천릴가고
아끈배에	놀던서낭	어뜩하민	만릴가시던
한강배에	놀던참봉	영급좋은	서낭님아
앞이망에는	청사초롱		[자료 · 14]

(4) 떼네떼네	화룡선떼네	떼네떼네	화룡선이떼네
떼네떼네	호매선이떼네	떼네떼네	새우선이떼네
떼네떼네	뜨튼바당 조기선이떼네		[자료 · 18]

(5) 가뽀시다	가뽀시다	온갖고통도	전연없고
좋은국으로	가뽀시다	황금으로	땅이뵈고
천상인간	다버려두고	연꽃으로	짐을지어
극락으로나	가뽀시다		[자료 · 29]
극락이라	흐는곳은		

(6) 어향어향	어향어향도	이물에는	이사공아
어기야디야	방혜로구나	고물에는	고사공아
풍년왔구나	풍년왔구나	허릿대밧디	화장아야
논쟁이와당에	돈풍년왔구나	물매점점	늦어간다
산엔가난	산신대왕		[자료 · 38]
물엔가난	용궁서낭		

(7) 뗏다뗏다	호매선뗏다	어여차소리에	배올라온다
둥둥뜨는	저군함아	잘잘가는	츄나무배여
호숨은바다에	영화불치니	술술가는	술나무배여
내가슴도	윤랑들랑하는다		[자료·40]

遊戯型은 즐기 놀면서 부른다는 점에서 非機能的이다.

이 경우 서우젯소리의 가락은 고정되어 있으나, 그 사설은 唱者에 따라 多樣하다. 例謠는 흔히 가창되는 것들로 代表的인 것만을 제시했는데, (1)과 (2)는 서로 사설이 交流되며 歌唱되고 그 內容도 濟州人의 苦痛스런 삶에서 오는 恨이 주로 反映되어 있다. (3)은 영감(도깨비神)의 차림과 神通力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辭說은 선왕삼봉본풀이²⁷⁾에서 借用된 것으로 다른 各篇에도 일부씩 삽입되어 가창되고 있다. (4)는 巫俗儀禮 종료후 放船된 退送船이 바다에 떠있는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배(船)의 명칭이 ‘-선아 뗏비’라는 基本構造에 따라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이 음의 類似性으로 말미암아 ‘-산(山)’으로 訛傳되어 ‘한타산’, ‘북망산’ 등과 같이 산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5)는 佛教信仰民들이 즐기 놀며 회심후 사설일부를 서우젯소리 가락에 맞추어 부른 경우로 그 內容이 佛教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特異한 노래다. (5)의 앞머리 사설의 일부는 달구노래에도 삽입되어 불려지기도 했다.²⁸⁾

(6) (7)은 멀치후리는 노래와 해녀노래에 이어 歌唱된 특수한 例謠다. 이것은 전국 민속경연에 출연시 출연팀이 민속놀이로 무민 멀치후리는 작업과 해녀작업의 흥을 돕기 위해 부른 것으로 서우젯소리 口演의 本源的인 것은 아니지만, 서우젯소리가 놀이의 흥을 고조시키는 機能으로 말미암아 가창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歌唱樣相의 일면을 보여준다.

遊戯型 서우젯소리는 그 辭說이 多樣하고 流動的인데 비해 가락은 固定的이다. 바로 이것이 서우젯소리를 傳承시키는 基本樣相이라 하겠다. 그리고 唱者는 대부분 女性이며 濟州島 전지역에 걸쳐 傳承되는데, 唱者의 歌唱能力에 따라 가락과 內容이 變化를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漁業이 성한 해안지방에서 수집된 노래가

27) 玄容駿, 上揭書, pp.93~94.

28) 「韓國口碑文學大系」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p.1183~1186.

中山間地方에서 수집된 것보다 內容이나 가락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우젯 소리가 지역에 국한됨이 없이 巫俗儀禮에서 공히 불려지지만, 그 형성배경으로 볼 수 있는 漁業과 관련된 巫儀, 특히 <영등굿>에서 주로 가창되는 점, 그래서 漁業이 성한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은 歌唱機緣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3. 勞動型

밭에서 김을 맬 때 김매는 婦女子들이 어울려 부르는 노래를 <김매는 노래>라 한다. 現地에서 일컫는 謠名은 <사디소리> 또는 <사데소리>라 하는데, 이는 '어긴여랑 사디로다'라는 後敍에서 연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우젯소리는 굿의례에서 祭次와 祭次사이의 <석살림>에서 神을 즐겁게 놀리고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또 즐겁게 놀면서 다른 민요와 더불어 불리지만, 濟州島 東部地域인 表善面 城邑을 중심으로 南元·城山일대에서 김매는 作業에서 불려지고 있다²⁹⁾는 점에서 일단 하나의 서우젯소리 類型으로 分類했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어느제민	요검질다매렌
검질짓고	골넘은밭되	싸아라근	잘골람매소
고분쇠로나	여의멍가라	먼땃사름	듣기나종게
어야저소리에	넘어나간다	즈께사름	구경도종게
앞멍에랑	들어나오라	요나이사	멧나이리
뒷멍에랑	무너나사라	요네검질	놈을주나
검질은보난	잘도나났저		[자료·39]

이 例謠는 그 辭說이나 機能面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가창되는 김매는 노래와 유다른 점은 없다. 그런데 김매는 노래와의 차이점은 그 가락과 후렴에 있다. 김매는 노래의 가락은 <진사디>, <쫄른사디>로 구분할 정도로 장단완급이 뚜렷하고, 서우

29) 筆者가 舊左邑 東金寧里에서 서우젯소리 조사시 舊左邑 松堂里에서 서우젯소리가 김을 맬때 불린다는 것을 제보자인 김경생(여·56)氏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나, 노래는 수집할 수 없었다.

셋소리 가락은 매우 유연하고 구성지다.³⁰⁾ 또한 김매는 노래의 일반적인 후렴은 ‘어기요랑 사디야(사대야)’³¹⁾나 ‘어긴여랑 사디로다’³²⁾인데 서우셋소리의 후렴은 ‘아하아하양 에헤영에헤에요’가 일반적이다. 上記 例謠의 후렴은 서우셋소리의 후렴 형태와 유사하며, 後敎은 노래의 가락 또는 旋律을 정하는 機能을 갖기에 例謠는 서우셋소리 가락으로 불려진 노래다. 따라서 例謠는 서우셋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에 轉用되어 불려진 노래라는 점에서 特異한 型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勞動型 서우셋소리는 民謠 分類上 基準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되는데, 機能에 따라서는 김매는 노래로, 가락에 따라서는 서우셋소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 수집된 濟州島 民謠의 자료들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우셋소리가 다른 勞動謠에는 轉用되지 않고 김매는 노래로만 轉用되어 불리는가가 문제시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우셋소리의 가락이 구성지고 흥겹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음악적, 민속학적인 면에서 더 많은 考察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음 항목에서는 분석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제외시킨다.

30) 金榮敦, “城邑民謠의 實相”, 上揭書, p. 27.

3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1, p. 267.

32) 「韓國口碑文學大系」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 519.

IV. 서우젯소리의 形式

1. 歌唱形式

先後唱의 전형적인 唱法을 지닌 서우젯소리의 歌唱形式을 分析하면 다음 세 가지 類型이 나타난다.

I型：序詞+後斂+本詞+後斂

II型：本詞+後斂+本詞+後斂

III型：後斂+後斂+本詞+後斂

이 세 類型의 形式에 따라 서우젯소리는 歌唱되고 또한 傳承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類型중 I型的 形式에 따라 歌唱되는 서우젯소리가 40편의 자료중 21편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形式이 정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辭說이나 內容도 多樣하고 뛰어나다. 따라서 I型이 서우젯소리 歌唱形式의 本源的인 것으로 原型에 해당한다. II型은 序詞와 後斂이 생략된 채 바로 本詞가 歌唱된 경우이고, III型은 서우젯소리의 後斂이 序詞의 機能을 하고 있는 類型으로, II·III型은 I型이 變異型으로 볼 수 있다.

1.1. 序詞

서우젯소리 歌唱의 基本形式이자 原型으로 볼 수 있는 I型을 중심으로 序詞의 類型과 그 機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序詞는 의미없는 餘音句와 의미있는 辭說이 결합되어 노래의 첫머리에서만 불려지고 있는데, 序詞가 가창된 자료 21편을 대상으로 그 類型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A. 어기여차	어향어향
어향어향도	방혜로놀자 (10 편)

- | | |
|--------------------|------------------------|
| B. 어기여차
일천간장을 | 살강기로
다풀러놀자 (3편) |
| C. 에헤에야
어허차소리에다 | 어허허어요
서우젯소리로놀자 (3편) |
| D. 어야디아 | 서낭이로구나 (3편) |
| E. 어야리뒤야
어어야리야 | 어야리뒤야
상사뒤야 (2편) |

다섯 유형중 A는 巫儀型이나 遊戯型 서우젯소리에 두루 불려지는 序詞다. B는 巫儀型에서만 불리고 C, D, E는 遊戯型에서 주로 불려졌다. 그런데 A, B, C, D는 서우젯소리의 歌唱 動機나 內容과 연관성을 지닌 固有의 序詞로 볼 수 있으나, 다음 例謠를 통해 볼 때 E는 다른 유형의 民謠에서 轉用된 序詞라 하겠다.

어여로	상사뒤요
千里乾坤	太平時에
도덕노훈	우리聖君
康衢烟月	童謠듯던
堯임금	성덕이라
어여로	상사뒤요
舜임금	넉픈聖德으로 내신聖器
歷山の	밭을갈고
어여로	상사뒤요 ³³⁾ (加點: 筆者)
	[「春香傳」完版本]

「春香傳」에 삽입된 「農夫歌」로, 이 노래는 지금도 本土에서 불려지고 있는데, 後敏이 E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農夫歌의 '어여로 상사뒤요'는 序詞와 後敏으

33) 「韓國民俗大觀」 6卷. p.278.

로 불렀으나, E는 오직 序詞로만 불렀다는데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序詞는 노래를 시작하면서 ‘일천간장 다 풀려놀자’, ‘서우젓소리 놀자’와 같이 歌唱動機를 밝히며 가락을 조절하고 목청을 가다듬는 機能을 갖고 있다.

아하하아아양	어허양어허어어요
어여차소리에다	서우젓소리로놀고가자
아하하아아양	어허양어허어어요

[제보자는 노래하는 가락의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일단 중지했다가 가다듬은 다음 다시 불렀다] (加點:筆者)

아하하아아양	어허양어허어어요
어여차소리에다	서우젓소리로놀고가자
아하하아아양	어허양어허어어요
산으론가면은	산신서낭
바다론가면은	용궁서낭
아하하아아양	어허양어허어어요

[자료 · 17]

이것은 先唱者가 序詞의 가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後斂과 本詞의 가락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序詞는 歌唱動機의 제시와 後斂과 더불어 노래 전체의 가락을 조절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1.2. 後斂

後斂(Refrain. Nonsenseverse)은 民謠의 成立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要素³⁴⁾로 集團的 歌唱民謠인 서우젓소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다. 先後唱으로 歌唱되는 서우젓소리의 後斂形式은 일반 先後唱 民謠와 共通特性을 지니는데, 後唱으로 歌唱되는 後斂은 調律的 性能(自己表現)과 休息的(轉換的) 性能³⁵⁾을 가지고 있다.

34) Johannes C. H. R. Steenstrup, 「Medieval popular Ballad」, university of washinton press edition, 1968, p.139.

“Finally the refrain i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ballad”

35)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p.49.

또한, 서우셋소리의 後敎은 行과 行사이에서 규칙적으로 가창되어 行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本詞의 律格을 결정한다.

어기여차	삼강기로	백금상에	요왕이놀고
일천간장을	다풀려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수정국대왕이	놀고자향면
진바당에랑	진소리로놀고	수정국부인도	다놀고가자
짜른바당에랑	짜른소리로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자료·6]
천금상에	대왕이놀면		

例謠에서 보듯 無意味한 辭說로 이루어진 後敎은 조사 수집한 자료를 통해 볼 때 旋律의 長短에 따라 길게 또는 짧게 불릴 뿐 그 類型은 單純하다. 조사 수집한 40편의 各篇에서 代表的인 後敎을 長短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 A. 1. 아아아 에에용 [25·26]
- 2. 아아양 에에요 [33]
- B. 1.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9]
- 2. 아아양 어어아어어어 [18]
- C. 1.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6]
- 2. 아하하아아양 어허양어허어어어 [14·17]

A는 가장 짧게 불린 예이고, C는 가장 길게 불린 예인데, 濟州島 民謠를 녹음한 후 樂譜化해 놓은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³⁶⁾ 에 수록된 서우셋소리 자료를 참고하여 어떤 律格을 지니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上記書에 의하면 서우셋소리는 3분박 4박의 2마디 앞소리를 대면 역시 3분박 4박 2마디의 後敎이 따르는 장절형식³⁷⁾으로 사실과 後敎의 律格이 同一함을 알 수 있

36)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1984.

37) 上揭書, p. 215.

다. 이 점에서 서우젯소리의 後敎은 本詞의 律格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우젯소리가 歌唱民謠인만큼 音樂的 性格을 고려한 律格體系의 分析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³⁸⁾

이를 위해 서우젯소리 한 편의 樂譜를 인용한다.

서우젯소리³⁹⁾

실음은 장 3도 높음
(예) ♩ - 144 ~ 152

어허여차아--/- 소리-- 에 다-- / 서우젯-소리-로/놀고 놀자 //

(받)

아 / 아-- 야-- 오/어 - 허양/어허-요 //

(예)

산으로 가면-/ 산신-령-이-요-- / 바다론-가면-은/용-궁서 남 //

(받)

아 / 아-- 야-- 오/어 어허야/어허-요 //

(예)

고물 예는--/고사-고-오아-- / 이물-예-는-/-이사공-이여-//

(/ 線 筆者)

38) 金大幸, “高麗歌謠의 律格”, 「鄉歌麗謠研究」, 二友出版社, 1985, p. 337.

39)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p. 277.

이 사료가 서우셋소리의 律格 研究에 절대성을 지닌다고는 볼 수 없지만, 本詞와 연관이어 後敏의 音步를 考察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로 본다.

樂譜를 準用하여 本詞의 音步를 구분하면, 한마디는 강약중강약의 2音步律이다. 따라서 한 행, 즉 2마디는 강약중강약의 2音步가 1회에 한하여 反復되어 4音步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後敏도 마찬가지다.

앞에 제시된 後敏 類型중 C.2와 뒤 악보의 後敏은 同一唱者가 부른 것이기에 대비시켜 律格을 分析해 볼 수 있다.

- I. 아하하아양 어허양어허어어요
- II. 아/아 - 야 - ㅇ//어 - 허양/어허 - 요//
- III. 아하하/아양//어허양/어허어어요//

後敏의 音步 구분을 豫期的 慣習 즉 마디(clon)에 의한 音步 결합과 音步의 發音 時間이라는 측면⁴⁰⁾에서 시도해 본 결과 I은 II와의 대비를 통해 III과 같이 4音步의 律格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된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C의 1, 2後敏과 같은 類型도 다음과 같이 4音步格의 律格을 보인다.

- I. 아양아요 에엥에요 [24]
- II. 아/야 - 요요//에 - /에데요요// [民·音. p.239]
- III. 아양/아요//에엥/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後敏의 律格을 分析하면, 上記 A, B, C의 세 類型은 모두 4音步로 나타나는데, A의 後敏은 4音步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A 類型의 後敏은 B와 C 類型이 지닌 서우셋소리 고유의 律格이 傳承過程에서 축약되어 나타난 變異型인 2音步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점은 後敏 律格이 2音步인 경우는 그 本詞의 律格도 2音步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입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B나 C와 같은 後敏 類型을 3音步로 보는 것은 止揚되어야 할

40) 金大幸, “抒情民謠의 構造的 特性,” 「國語教育」 36號, 韓國國語教育研究會, 1980, p. 82.

것이다. 즉 3音步로 보는 것은 論理的 文法的 基準의 구분으로는 타당한 音步 區分이 될 지는 모르지만, 慣習的 律讀의 체계에서는 不合理한 것⁴¹⁾이라 하겠다.

서우젯소리의 後敎은 韻律性이 높은 聲音的 要素(音素)⁴²⁾로 구성되어 있다. 後敎의 音素를 구분해 보면 母音은 /아.어.오/, 子音은 /ㅇ.ㅎ/이 中心音素를 이룬다. 上記 音素중 /아/는 Sonority가 큰 音素로 다른 音素와 響聲의 조화를 이뤄 音樂性을 높여주고, 子音 /ㅇ/은 感興 및 餘韻性을 放出함으로써 擬聲的 效果를 높이는 音素⁴³⁾이므로, 이와 같은 音素들로 構成된 서우젯소리의 後敎은 遊興을 高調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지금까지 考察한 바에 의하면 서우젯소리의 歌唱形式의 한 要素인 序詞와 後敎이 하나의 完全한 定型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 後敎이 無意味한 辭說로 構成되고 本詞의 律格을 결정하며 춤을 동반하여 遊興을 高調시킨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런 性格은 서우젯소리의 後敎이 原始綜合藝術(Ballad)의 韻律體系의 일면을 지닌 것⁴⁴⁾임을 보여준다.

2. 律格構造

民謠의 律格體系의 정립은 律格研究의 필수적인 先行條件이다. 그것은 律格研究가 民謠의 形式的 特性이나 傳統性 해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美的 實體의 해명을 위한 方法⁴⁵⁾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現在까지 民謠의 律格에 대한 先學들의 많은 研究가 있어 律格體系를 分析 定立하는데 기여해왔다. 先學들의 律格研究의 方法과 흐름을 綜合해보면, 音數律 중심의 研究에서 출발하여, 이 方法의 모순점을 극복, 지양, 보완하여 音步律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韓國詩歌 뿐만 아니라 民謠의 전반적인 律格體系를 정립하려는 노력

41) 金大幸, “高麗歌謠의 律格”, 「鄉歌麗謠研究」, 二友出版社, 1985, p. 341.

42)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pp. 58~59.

43) 上揭書, p. 59.

44) 上揭書, p. 53. 반음소리로 쓰이는 後敎은 대체로 춤이나 遊戲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各國 民謠의 共通된 特質로 後敎이 原始綜合藝術의 韻律體系의 하나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함.

45) 成基玉, “詩歌律格論”,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p. 47.

이 한정하다.⁴⁶⁾

本稿에서도 律格의 基層單位를 音步에 두어 서우젯소리의 律格體系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 音步區分의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學者에 따라 音步區分의 基準이 多樣한 실정이다.⁴⁷⁾

筆者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 즉 첫째 主觀的 現狀인 休止(cesura)를 경계로 한 氣節(Breath unit)을 기준으로 삼는 것, 둘째 통사적 단락인 行, 셋째 傳統化된 民謠의 旋律⁴⁸⁾에 준해서 서우젯소리의 音步를 구분한다.

2.1. 4音步格

서우젯소리는 一般庶民 多數에 의해 춤을 동반하고 불리는 民謠이기에 律格이 정연하게 體系化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조사 수집한 40편을 통해 보면 4音步가 30편을 차지했고, 2, 3音步는 혼합되어 나머지 各篇에 나타나 있다. 서우젯소리의 基本 律格은 4音步로 가락과 사설이 정제되어 있는데, 2音步 對應 連疊인 4音步와 논리적 의미의 叙述 폭이 확대된 4音步⁴⁹⁾로 세분된다. 後敎과 마찬가지로 서우젯소리 本詞의 律格이 4音步가 주를 이루는 것은 유연한 춤 動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背景에서 찾을 수 있다.

4音步格은 2, 3音步보다 壯重하고 悠長한 느낌을 주어 빠른 動作을 요하는 勞動謠나 빠르고 輕快한 가락의 非機能謠등을 제외하면 모든 民謠에 두루 나타나는 律格⁵⁰⁾이다.

46) 이 觀點의 研究는 律格形成을 측정할 수 있는 基層單位를 音步로 보는 것을 근간으로 1970년초 趙東-에 의해 선행되고 芮昌海, 金大幸, 成基玉 등에 의해 계속 이루어졌다.

趙東-, 「叙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芮昌海, “韓國詩歌韻律의 構造研究”, 「成大文學」 19호, 1976.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成基玉, “韓國詩歌의 律格體系研究”, 「서울대國文學研究」 48호, 1980.

47) 成基玉, “詩歌律格論” 上揭書, pp. 46~47.

48)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上揭書, p. 32.

49) 金大幸, “高麗歌謠의 律格”, 上揭書, pp. 304~341. 대응은 형식적 대응과 의미상 대응의 개념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時調의 各章은 2音步 대응연침이 2회로 限定된 것으로 봄.

50) 張德順 外 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0, pp. 93~94.

2.1.1. 2音步 대응 연첩형

- | | | | | |
|-----|--------|--------|--------|--------|
| (1) | 동의와당 | 광덕왕놀자 | 서의와당 | 광신요왕놀자 |
| | 남의요왕은 | 광덕요왕놀자 | 북의요왕은 | 흑이요왕놀자 |
| | 요왕황제국 | 태조님놀자 | 동경국대왕 | 다놀고가자 |
| | 세경국부인이 | 다놀고가자 | 황제국태조가 | 다놀고가자 |
| | 영등대왕님 | 어서놀서 | 영등대왕이 | 어서놀저 |

[자료·3]

- | | | | | |
|-----|-------|------|-------|------|
| (2) | 아끈물에 | 놀던서낭 | 한물에다 | 놀던영감 |
| | 아끈배에 | 놀던서낭 | 한강배에다 | 놀던참봉 |
| | 앞이망에는 | 청사초룽 | 뒷이망에는 | 흑사초룽 |
| | 망만부튼 | 소패립에 | 짓만부튼 | 도폭입고 |

[자료·14]

例謠 (1) (2)는 行과 行사이에 後斂이 가창되었기에 한 行은 4音步格이지만 律讀에 있어서는 생리적 조건으로 하여 前2步와 後2步의 중간에 休止를 넣어서 氣節의 段落(breath group)을 나누면⁵¹⁾ 2音步가 대응 연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後斂을 제외하고 音步를 區分한다면 2音步인 것이다. 그러나 後斂이 삽입되어 구분된, 統辭的인 段落인 行이 音步區分의 基準이므로 ‘아끈물에／놀던서낭／／한물에다／놀던영감／／과 같이 2音步가 대응 연첩된 4音步가 된다.

2.1.2. 서술목 확대형

- | | | | | |
|-----|---------|--------|-------|---------|
| (3) | 맹 지나바당에 | 실 브름불경 | 삼뚝인 | 부풀로고 |
| | 목 포라근 | 멜바당앞으로 | 어기랑창 | 배질을호계 |
| | 붓대들렁 | 글잘호기는 | 서울선비의 | 놀음이더라 |
| | 잠대를들렁 | 밧잘갈기는 | 농부한의 | 놀음이여 |
| | 한로영산 | 한로나영산 | 아름다운 | 우리도나제주도 |

[자료·10]

51) 鄭炳昱, 「韓國古典詩歌論」, 新丘文化社, 1982, p. 33.

(4) 지산천에 푸술새는 년년마다 짝어운데
유한 칭춘은 소곡소곡 늙어간다
간다 못간다 내가얼마나 울엇던고
자구내 포구에 눈물로다 한강수여

[자료·28]

이상 例謠 (3) (4)는 한 行의 前2步와 後2步에 休止를 넣어서 氣節의 段落은 구분되나 前2步와 後2步와의 사이에는 形式과 意味上 對應 關係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論理的 意味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叙述의 폭이 확대된 순수한 4音步格이다.

4音步格은 서우셋소리가 춤이 유연한 동작과 관계 있기 때문에 2音步 대응 연첩 형이든 서술의 폭이 확대된 형이든 律格의 흐름에는 분쇄되지 않는다. 오히려 두 율격 유형이 어울려 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2音步格

2音步는 1音步 다음으로 急激한 느낌을 주는 律格⁵²⁾으로 歌唱力이 뛰어나지 않은 唱者에 의해 불릴 때 나타나고 춤을 동반할 경우는 2音步로 가장되면 悠長한 춤動作에 변화가 일어나 빠른 動作으로 전환된다. 조사 수집된 各篇 40편중 4音步格의 各篇을 제외한 10편에 2音步格이 나타나는데, 2·3音步格, 2·4音步, 2·3·4音步가 혼합된 各篇으로 律格이 정제되어 있지 않다.

(1) 홀미를랑	놀고나가서	오피바당에	놀던서낭님아
노피나떠라	산신이요	어여차소리에	배올려간다
나부야떠라	요왕대신이요	뒤야차소리에	닷댕겨간다
지픈바당에	놀던서낭님아	허릿대밧되	화정애기

[자료·9]

(2) 떳다떳다	성강선떳다	깃만부튼	도복을입고
떳다떳다	호매선떳다	움숙치만부튼	집새길신고
떳다떳다	거북선떳다		
훈뽀뽀	곰방달물고		

[자료·25]

52) 張德順 外 3人, 上揭書, p.93.

分化되어 2音步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서우젯소리의 2音步格은 고유의 基本律格인 4音步格이 分化되거나 變異되면서 나타나는 律格인 것이다.

2.3. 3音步格

3音步格은 各篇에 1~4행 內에서 삽입되어 나타날 뿐 3音步格이 基本律格을 이룬 各篇은 한편도 없었다. 따라서 3音步格은 서우젯소리의 고유 律格과는 거리가 먼, 2音步格이나 4音步格에서 變異된 律格이다.

(1) 이물예	놀던도	시낭이여
고물예도	놀던도	서낭이여
놀고가자	초상님을	불령간다

[자료·9]

(2) 선흔헛던	아기씨만	시낭이라
대성헛던	도련헛만	시낭이라

[자료·35]

이같이 서우젯소리의 變格인 3音步格은 基本律格인 4音步의 自然的 秩序를 파괴한 變化이기 때문에 安靜感이 없고 不安하다. 그리고 3音步格이 나타난 이유로는 부의식적인 이유와 퇴식적인 이유⁵³⁾를 들 수 있는데, 서우젯소리의 3音步格은 前者에 해당한다. 즉 唱者가 歌唱하는 과정에서 사설을 잊어버려 4音步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歌唱을 잘못 시작하여 2音步보다 한 어절이 길어진 데서 나온 결과라 본다.

이것은 다음의 例謠를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다.

(1) 산지축항으로	느리는물은	일천에뱃뎃줄	석은물이러라
나심중으로	나는두어	느리는다	물은두어
일천에간장도	석은물이여	어향뒤향도	방혜로고나

[자료·10]

53) 趙東一, 上揭書, p. 99.

(2) 바람아 불어라 횃 바람아 닳지워라
 물결이 가더냐 파도야 치더냐
 쓸물나면 동의와당
 들물나면 서의와당 남의와당

[자료· 22]

(3) 떳네 떳네 화룡선이 떳네
 떳네 떳네 호메선이 떳네
 떳네 떳네 뜬뜬바당 조기선이 떳네
 떳네 떳네 화룡선이 떳네

[자료· 18]

(1)은 4音步格에서 唱者가 辭說을 잊어버려 律格을 맞추기 위해 다른 辭說로 채워 놓음으로써 辭說이 혼란을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1)의 2행과 3행은 ‘나심중으로 논리는물은 일천간장도 석은물이어’의 한 行으로 불리는 것인데 2행으로 길어졌다.

(2)는 唱者가 辭說을 잊어 4音步格을 벗어나 2音步와 3音步格으로 부른 경우다. 다른 各篇을 보면 3, 4행은 ‘쓸물나면 동의와당 들물나면 서의와당’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2音步 대응 연접 4音步格으로 前2步만 불렀다가 다시 4音步를 갖추기 위해 後2步에다 ‘남의와당’이란 辭說을 덧붙임으로써 3音步로 變化되었다.

(3)은 빠른 가락의 2音步格으로 부르다 3행에서 ‘뜬뜬바당’이라는 사설이 더 들어가서 3音步로 길어진 것이다. 律格이 잘못되었음을 안 唱者는 즉시 다음 행에서 처음에 불렀던 辭說을 다시 부름으로써 律格을 조절하고 있다.

3. 反復技巧

反復技巧은 音節의 反復이거나 語彙 또는 構文의 反復이거나를 막론하고 反復의 의미로 보아 詩行에 情的 效果를 부여하는 하나의 장치⁵⁴⁾로서 後敎과 함께 民謠形式의 二大特徵이라 할 정도로 자못 중요하다. 그것은 民謠의 反復이 形式的 統一을

54)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p.190.

이루고 기억과 이해를 돕는 구실⁵⁵⁾뿐만 아니라 民謠의 構造를 이해하는데⁵⁶⁾ 기여하는 점이다.

內容的으로는 情緒 및 旋律的 效果를 위해서 주로 구사되나 가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또한 자주 구사되는 反復은 生動하고 원기왕성한 旋律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는 歌唱民謠에서 더욱 두드러진 特徵이다.

反復은 그 성격상 單純反復, 變化反復, 發展的 反復⁵⁷⁾으로 反復의 요소상 音節反復, 語彙反復, 統辭反復⁵⁸⁾으로 나뉜다.

서우셋소리는 力動的인 歌唱民謠인만큼 反復技巧가 다양한 면이 있으나, 音節反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語彙 및 統辭反復은 각편마다 혼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筆者는 語彙와 統辭를 중심으로 反復技巧의 양상을 고찰했다.

3.1. 語彙反復

I. AAxA형

- | | |
|------------|---------|
| (1) 간다간다 | 내가돌아를간다 |
| (2) 돌아돌아 | 말모를돌아 |
| (3) 떴네떴네 | 화룡선이떴네 |
| (4) 어멍아어멍아 | 나나준어멍아 |

II. XAXA형

- | | |
|------------|-------|
| (5) 아기씨서낭 | 조왕서낭 |
| (6) 도물체도사공 | 가늌사공 |
| (7) 불쌍흔정네 | 가련흔정네 |
| 원통흔정네 | 불쌍흔애기 |

55) 鄭東華, 上揭書, p.68.

56) R.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03.

"patterns of repetition can provide structure and coherence to an oral poem—a necessary aspect in a medium as ephemeral as the spoken or sung word—but need not lead to monotony."

57) 趙東一, 上揭書, p.108.

58) 鄭東華, 上揭書, p.69.

Ⅲ. X A X B 형

- | | |
|---|---|
| (8) 동 ^x 의 ^x 화 ^x 당 ^x
서 ^x 의 ^x 화 ^x 당 ^x | 광 ^x 덕 ^x 왕 ^x 놀 ^x 차 ^x
광 ^x 신 ^x 요 ^x 왕 ^x 놀 ^x 차 ^x |
| (9) 이 ^x 물 ^x 에 ^x 는 ^x
고 ^x 물 ^x 에 ^x 는 ^x | 이 ^x 사 ^x 공 ^x 아 ^x
고 ^x 사 ^x 공 ^x 아 ^x |
| (10) 앞 ^x 이 ^x 땅 ^x 에 ^x 는 ^x
뒷 ^x 이 ^x 땅 ^x 에 ^x 는 ^x | 청 ^x 사 ^x 초 ^x 룡 ^x
흑 ^x 사 ^x 초 ^x 룡 ^x |
| (11) 산 ^x 으 ^x 른 ^x 가 ^x 면 ^x 은 ^x
바 ^x 다 ^x 른 ^x 가 ^x 면 ^x 은 ^x | 산 ^x 신 ^x 시 ^x 낭 ^x
용 ^x 궁 ^x 서 ^x 낭 ^x |

3.2. 統辭反復

I. A A X A 형

- | | |
|--|---|
| (12) 놀 ^x 다 ^x 가 ^x 차 ^x
불 ^x 쌍 ^x 흔 ^x 정 ^x 네 ^x 덜 ^x 도 ^x | 놀 ^x 다 ^x 가 ^x 차 ^x
놀 ^x 다 ^x 가 ^x 차 ^x |
| (13) 흥 ^x 년 ^x 왔 ^x 구 ^x 나 ^x
논 ^x 쟁 ^x 이 ^x 화 ^x 당 ^x 에 ^x | 흥 ^x 년 ^x 왔 ^x 구 ^x 나 ^x
문 ^x 흥 ^x 년 ^x 왔 ^x 구 ^x 나 ^x |
| (14) 날 ^x 울 ^x 렷 ^x 구 ^x 나 ^x
스 ^x 물 ^x 흔 ^x 실 ^x | 날 ^x 울 ^x 렷 ^x 구 ^x 나 ^x
삼 ^x 도 ^x 울 ^x 려 ^x |

II. A B 연속형

- | | |
|---|--|
| (15) 북 ^x 남 ^x 동 ^x 너 ^x 덜 ^x
북 ^x 남 ^x 동 ^x 너 ^x 덜 ^x | 노 ^x 는 ^x 덜 ^x 로 ^x
노 ^x 는 ^x 덜 ^x 로 ^x |
| (16) 불 ^x 쌍 ^x 흔 ^x 다 ^x
불 ^x 쌍 ^x 흔 ^x 다 ^x | 어 ^x 서 ^x 가 ^x 차 ^x
어 ^x 서 ^x 가 ^x 차 ^x |

III. X A X A 형

- | | |
|---|--|
| (17) 산 ^x 신 ^x 일 ^x 궤 ^x 이 ^x
산 ^x 신 ^x 백 ^x 관 ^x 이 ^x | 놀 ^x 고 ^x 감 ^x 서 ^x
놀 ^x 고 ^x 감 ^x 서 ^x |
| (18) 덕 ^x 매 ^x 물 ^x 석 ^x 에 ^x
황 ^x 에 ^x 물 ^x 석 ^x 에 ^x | 놀 ^x 던 ^x 조 ^x 상 ^x
놀 ^x 던 ^x 조 ^x 상 ^x |
| (19) 나 ^x 전 ^x 승 ^x 이 ^x
나 ^x 관 ^x 조 ^x 가 ^x | 날 ^x 울 ^x 려 ^x 간 ^x 다 ^x
날 ^x 울 ^x 려 ^x 가 ^x 네 ^x |

(20)	찰살아도	채 팔재여
	못살아도	채 팔재여

IV. AXAX형

(21)	훈 [·] 덕 [·] 를 [·] 랑 [·]	놀 [·] 당 [·] 도 [·] 가 [·] 꼭 [·]
	훈 [·] 덕 [·] 를 [·] 랑 [·]	춤 [·] 덜 [·] 추 [·] 자 [·]
(22)	어 [·] 뎡 [·] ㅎ [·] 단 [·]	넋 [·] 을 [·] 나 [·] 고
	어 [·] 뎡 [·] ㅎ [·] 단 [·]	흔 [·] 도 [·] 나 [·] 고
(23)	망 [·] 만 [·] 부 [·] 튼 [·]	소 [·] 패 [·] 립 [·] 에 [·]
	짓 [·] 만 [·] 부 [·] 튼 [·]	도 [·] 록 [·] 입 [·] 고
(24)	산 [·] 지 [·] 초 [·] 총 [·] 은 [·]	곤 [·] 륜 [·] 산 [·] 이 [·] 요
	하 [·] 지 [·] 초 [·] 총 [·] 은 [·]	황 [·] 하 [·] 주 [·] 라

V. XAXB형

(25)	어 [·] 뎡 [·] 국 [·] 은 [·]	어 [·] 디 [·] 런 [·] 고
	벨 [·] 파 [·] 진 [·] 이	웨 [·] 움 [·] 더 [·] 라
	아 [·] 방 [·] 국 [·] 은 [·]	어 [·] 디 [·] 런 [·] 고
	진 [·] 도 [·] 야 [·] 맛 [·] 섬 [·] 이	웨 [·] 움 [·] 더 [·] 라
(26)	한 [·] 로 [·] 영 [·] 산 [·] 으로	느 [·] 리 [·] 는 [·] 물 [·] 은
	낭 [·] 섭 [·] 물 [·] 섭 [·] 에	석 [·] 은 [·] 물 [·] 이 [·] 러 [·] 라
	산 [·] 지 [·] 축 [·] 향 [·] 으로	느 [·] 리 [·] 는 [·] 물 [·] 은
	일 [·] 천 [·] 에 [·] 뱃 [·] 닷 [·] 줄	석 [·] 은 [·] 물 [·] 이 [·] 러 [·] 라
	나 [·] 심 [·] 중 [·] 으로	느 [·] 리 [·] 는 [·] 물 [·] 은
	일 [·] 천 [·] 에 [·] 간 [·] 장 [·] 도	석 [·] 은 [·] 물 [·] 이 [·] 여

VI. 특수형

(27)	남 [·] 도 [·] 늑 [·] 영	고 [·] 목 [·] 이 [·] 웨 [·] 민
	늑 [·] 던 [·] 새 [·] 도	늘 [·] 아 [·] 나 [·] 고
	꽃 [·] 도 [·] 늑 [·] 영	낙 [·] 화 [·] 가 [·] 웨 [·] 민
	부 [·] 뜨 [·] 단 [·] 나 [·] 비 [·] 도	늘 [·] 아 [·] 난 [·] 다
	나 [·] 도 [·] 늑 [·] 영	백 [·] 수 [·] 가 [·] 웨 [·] 민
	오 [·] 단 [·] 님 [·] 도	되 [·] 홀 [·] 아 [·] 사 [·] 네

考察한 결과 語彙反復보다는 統辭反復이 서우셋소리의 중심 反復技巧라 할 만큼 다양하다. 그리고 語彙反復에서는 AAXA형은 單純反復, XAXA형과 XAXB형은 變化反復으로 發展的 反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統辭反復에서는 反復技巧가 다양하여 AAXA, AB연속형은 單純反復, XAXA, AXAX형은 變化反復, XAXB형과 특수형은 發展的 反復의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V. 서우젯소리의 內容

서우젯소리의 文學的 內容을 巫儀型과 遊戲型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濟州島의 다른 類型의 民謠와 相通하는 점과 差異點이 드러난다. 노동·가난 등 고된 生活에서 오는 삶의 悲痛性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으나, 各篇 곳곳에 나타나는 神名과 神놀림을 위한 풀이 사설은 다른 類型의 民謠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內容이다.

서우젯소리는 恨의 가락에 맞추어 神明으로 부르는 民謠⁵⁹⁾이기에 사실 곳곳에 濟州人의 恨의 樣相이 內在해 있다. 恨은 맺힘이니 맺힌 恨을 품으로써 새로운 삶의 力動性을 획득하고 否定的 情緒를 肯定的 情緒로 昇華시키는 감정적 구제방식이자 恨을 恨으로써 초월케 하는 노래가 서우젯소리인 것이다.

濟州人의 恨맺힘은 濟州島의 時空의 惡條件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삶의 悲痛性⁶⁰⁾에서 그 根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濟州島는 韓半島의 최남단에 위치한 絶海孤島라는 立地的 條件에서 오는 隔離性과 아울러 孤立性⁶¹⁾ 띠고 있다는 점과 氣候와 風土의 惡條件에서 오는 생활의 고통은 濟州人의 삶을 찌들게 했다. 거기다 歷史的 側面에서 볼 때 中央官吏의 폭정, 地方土豪의 威壓, 蒙古의 侵奪, 過重한 賦役, 倭寇의 侵略 등은 濟州島民의 삶을 눈물의 역사로 만들었다.⁶²⁾

따라서 濟州人의 삶의 歷史는 곧 恨의 총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恨은 人間에게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神에게도 맺힌다는 것이 巫俗의 觀點에서의 思考

59) 文武秉, “濟州島 곳의 演劇性에 관한 研究”, 上揭書, p. 39.

60) 金榮敦, “濟州島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 「民俗文學研究」, 正音社, 1984, p. 401. 金榮敦님은 濟州島 民謠의 內容의 特色을 A. 時空의 惡條件에서 오는 悲痛性, B. 自主動勉性과 不敗의 信念, C. 現實主義的 功利性의 세 가지로 요약함.

61) 梁淳玟, “朝鮮朝 流配文學研究”-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2, pp. 28~29.

62) 金榮敦, 上揭書, pp. 407~408.

다.⁶³⁾ 이것은 善神이든 惡神이든 人間과 같은 感情을 느낀다고 믿는 觀念으로 그 결과 神은 人格化된다. 따라서 人間の 恨은 神의 恨과 同一時되어 나타나는데, 바로 巫儀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는 神을 놀림으로써 神의 恨을 푸는 노래다. 神의 恨을 푸는 과정에서 人間の 恨까지 풀어내는 것이 巫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人間の 恨을 풀어내는 儀式인 것이다. 따라서 서우젯소리는 멧힌 恨을 노래함으로써 解恨을 보여주는 노래인 것이다.

1. 恨풀이

1.1. 生活苦의 설움

民謠는 어떤 類型의 民謠든 원래부터 悲慘과 哀愁를 띠게 마련이지만,⁶⁴⁾ 서우젯소리에는 悲慘과 哀愁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 있다. 勞動의 苦痛이나 生活의 艱辛에서 야기된 恨은 노래 가락의 흐름에 따라 한꺼번에 쏟아져 눈물진 삶의 역사를 재구한다.

(1) 설운정네야	바쁜숨먹으멍	하루삼시	다끓으멍
혼질두질	지폰물에	[청취불능]	물질하곡
불쌍흔정네덜	고생덜하멍	요런고생덜	다하여가멍
우는애기	버려두고	멧힌간장을	다풀려놀자
젓애기	다떨어두곡		[자료·4]
조밥밥끓곡	점심밥끓멍		
(2) 아이고려상	밤낮에	나팔조가	날울려가네
좁들기위흔	생각을하민	정성굿언	구월에나난
열흔애기난	우섯오누이키우멍	구원국화	내벗이로다
일천간장에	다석은요소리여		[자료·10]
나전성이	날울려간다		

63) 玄容駿, “處容說話考”, 『民俗文學研究』, 正音社, 1984, p. 217.

玄容駿님은 說話에서 龍神의 아들이 人間과 함께 산 일등은 神을 인간과 同性同態로 본 觀念이라 함.

64) 金榮敦, 上揭書, p. 403.

(1)은 영등굿에서 불린 서우셋소리로 海女들의 고된 삶의 현상이 생생하게 재생되어 있다. 젓달라고 우는 애기를 집에 놔둔 채 죽음을 연상하는 검푸른 바다에서 가난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海女作業을 해야만 하는 삶에서 濟州의 海女들은 온갖 恨을 가슴에 새겨야 했다. 이 노래는 海女가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굿을 진행하는 심방이 불렀지만, 심방은 海女들의 恨맺힌 삶을 生活속에서, 또는 巫儀를 행해오면서 일찍부터 體得해 왔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심방은 信仰民衆의 恨맺힌 삶을 슬픈 연유로 엮어냄으로써 恨맺힌 信仰民衆의 恨을 풀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2)에서 보듯 서우셋소리는 '일천간장'에 쌓인 恨을 푸는 노래다. 막중한 노동에서만 恨이 맺히는 것은 아니다. 濟州島의 氣候的 惡條件은 3년에 1회는 凶年을 만들어 濟州人을 食糧難에 허덕이게 했다.⁶⁵⁾ 거기다 疾病의 來襲을 가져와 濟州人의 生活를 더욱 괴롭혔다. 그래서 濟州女人은 '열흔애기난 8섯오누이키우멍' 살아야 했고, 여기서 오는 설움과 苦痛은 끊임없이 눈물진 삶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같은 極限的인 삶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恨인 것이다.⁶⁶⁾ 가슴에 맺힌 恨이 極限에 이르면 사람은 非凡常의 行動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精神的인 病으로 이것의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儀禮로 代表的인 것이 <두린굿>이다.

(3) 설운애기야	널 낳던 날은	초전성판즈	다그르첫구나
해도 돌도	없는 날이던가	불쌍흔정네야	놀당가라
에수믿어근	천당갈걸	불쌍도호고	적막도호고
불교믿어근	극락을갈걸	가련도호고	칭원도호네
설운정네야	불쌍흔애기야		[자료·6]
총각머리	등에 지고		
(4) 불쌍흔성네	가련흔정네	금전돌판	서울로가난
원통흔정네	불쌍흔애기	어명호단	넋도나고
돈아돈아	말모든돈아	어명호단	혼도나고

65) 강경선,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1979, p. 81.

66) 文武乘, 上揭書, p. 26.

얼굴좋다	갱겨구나	멧년살자고	언약이더나
미음좋아	갱겨구나		[자료·8]
너도쳐너	나도나총각		

(5) 요놈의 금전	별레갓단	산천도울고	초목도우네
내일망쳐라	내일을망쳐	이벨이벨	영이벨호젠호난
설운정네	스물흔설	선주도울고	사공도우네
일천간장	다풀려놀자	산도넘엉	울고나가소
스물흔설이	울어가난	물도넘엉	울고나가자
느네어멍도	잘도나우네		[자료·7]
설운애기가	울어가난		

(3)~(5)는 한 여인이 上京하여 공장생활을 하다 영감신(도깨비)의 憑依로 병을 얻자, 이의 치료를 위해 치른 <두린곳>에서 불린 노래의 일부다. 뛰어난 文學的 修辭技巧 없이 직설적으로 患者의 恨맺힌 삶의 桎梏이 力動性 넘치는 言語로 表現되어 있다.

심방은 患者의 恨맺힌 삶을 노래했지만, 그것은 患者만의 것이 아니라 祭儀에 참여한 祭衆은 물론 더 나아가 濟州人의 恨서린 삶인 것이다. 해도 달도 없는 날 濟州島의 한 地域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맞부딪히는 苦痛은 가난이다. 그래서 ‘밤인들면 낮ㄴ치살고 낮인들면 밤ㄴ치’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濟州에서는 濟州人이 이고 사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 ‘돈아돈아 말모른돈아’ 라고 탄식을 하며 서울로 떠나지만, 서울 또한 理想郷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을 체험하고는 落郷해 人生을 한탄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좌절의 상황속에 안주하거나 自暴하지 않고 가능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찾기 위해 심방의 서우젯소리에 맞추어 춤과 눈물로써 가슴에 맺힌 恨을 풀어낸다. (5)에서의 이별은 ‘총각’으로 人格化된 영감신과의 이별이다. 이별에서 오는 울음은 非凡常에서 凡常의 획득, 憑依된 영감신의 이탈 결과 확장된 새로운 삶의 地平, 解恨, 즉 再生의 기쁨에서 일어나는 울음인 것이다.

1.2. 신세한탄

운것 生活苦에 시달리면서 쌓인 설움과 恨을 노래함으로써 풀고 再生의 과정을 거듭하다보면 늙음을 낫알에 곧바로 다가와 새로운 설움으로 나타난다. 늙고 죽음은 인생에 있어 불가피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恨맺힌 가슴으로 살아온 濟州人에게는 쉽게 포용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여기서 또한 恨은 하나의 덩어리로 응어리진다.

(6) 저산천애	푸술새는	무정 세월아	갈라면너만가지
년년마다	젊어온데	너무야	아깝은청춘
유한	청춘은	왜나테리고	가는가
소곡소곡	들어간다		[자료·28]

[中略]

(7) 남도늬엄	고복이웨민	나도늬엄	백수가웨민
놀던새도	놀아나고	오단님도	되돌아사네
꽃도늬엄	낙화가웨민		[자료·10]
부뜨단나비도	놀아난다		

(8) 호박은	늬으면	뵈기만	싫터라
맛이나	종건만		[자료·28]
사람은	늬어지면		

(9) 우리야	인생은	또다시울줄을	모르는구나
토란잎의	이슬이라		[자료·37]
흔번는착	죽어야지면		

(10) 무정세월	한히리에간다	우리 가죽으면	북망으로돌아간다
우리가살면은	언마나나살리		[자료·23]

(6)~(8)은 늬음을, (9)(10)은 죽음의 문제를 노래한 것으로 濟州人의 늬음과 죽음에 대한 思考의 한 단면을 충분히 보여준다. (7)(8)(9)는 自然과 인생을 상징적으로 연계시켜 차원높은 비유를 보여주고 있다. 비유된 사물들은 바로 日常生活 주변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6)은 새와 청춘의 대비, ‘부정세월’의 의인화를 통해 늙음을 한탄하고 있으면서도 늙음을 現實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의까지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로서 (7)(8)과 같이 체념을 통해 인생을 觀照하고 있다.

(9)와 (10)에 나타난, 濟州人이 체험에서 인식한 人生은 해가 뜨면 살아져버릴 ‘토란 잎의 이슬’처럼, ‘막상막 살아도 단팔십’인 짧은 삶의 과정으로 ‘한허리’에 청춘을 보내고 나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北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이다. 이처럼 제주인은 늙음과 죽음의 현실속에 직면한 狀態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응어리진 恨을 노래함으로써 허무나 人生無常의 이롭고 否定的 情緒를 삶을 觀照하는 肯定的 情緒로 再生시키고 있다.

1.3. 享樂

濟州人들은 過重한 勞動, 自然的·歷史的 災禍, 倭寇의 침입 등으로 항상 生活苦 속에서 불안한 生活을 영위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서 遊戱다운 遊戱를 즐기지 못했다. 勞動의 苦痛이나 생활의 긴장은 적극적인 생활욕구로 인하여, 또는 苦痛위에 오는 휴식이나 놀이를 통해 再生産的인 힘을 蓄積⁶⁷⁾하게 되는데, 그럴 기회가 자주 마련되지 않아 勞動의 과정에서 노래로써 恨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우셋소리에는 일부 작편이지만 恨을 놀이로 풀고자하는 享樂的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 서우셋소리에 이런 내용이 나타난 것은 일시적이지만 享樂的인 분위기에 있어 生活苦와 삶의 긴장에서 멎힌 恨의 응어리를 풀어내고자 함에 있다.

(11)	노새놀아 늙어지면 젊어실적	젊은때놀아 못노리라 놀아보자	젊어실적 향고보자 [자료·15]
(12)	우리가 놀다가 만사허사 잘살아도	요렇게 죽어지면 젊어신때 놀아보자 제팔재여	못살아도 흔번ㄴ찌 둥글둥글 놀다나가자 [자료·28]

67) 文武兼, 上揭書, p. 26.

(13) 부산이라	영도섬으로	놀이놀이	젊어서놀이
구경가기가	어찌하리오	하고병들면	못노리라
부산영도섬	좋다해도		[자료·35]
서울이라	삼각산으로		

(14) 우리가살면	멧백년사나	살기존뻬	삼십세라
막상막살아도	단팔십이여	스십마흔	오십헌웨면
뽕든날줍든시	다떼여불면	늙어지면	못노리로다
단스십도	못사는구나		[자료·37]
늘기존뻬	이십세요		

(11)~(14)의 共通의인 內容은 늙고 병들면 즐길 수 없으므로 젊은 시절에 놀아 보자는 것으로 享樂的 思考가 反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享樂的 內容은 享樂 그 자체에 머무는, 享樂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享樂과 먼 桎梏의 삶에 대한 한탄이며 일천간장 멧힌 恨을 풀으로써 삶의 새로운 地平을 여는 한 方便인 것이다. 享樂的 內容중 특이한 것은 잘살고 못사는 貧富의 문제를 팔자소관으로 自慰하면서 함께 놀아보자는 濟州人의 소박한 가치관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人生을 40년으로 헤아리는 現實的 功利性이 나타난 점이다.

전반적으로 恨스러운 가락으로 불리는 서우젯소리에 이와같은 享樂的 內容이 反映된 것은 서우젯소리가 다른 唱民謠와 함께 불린다는 데서 唱民謠의 영향이라 볼 수 있지만, 서우젯소리가 神과 人間을 즐겁게 놀리고 춤추게 하는 機能과도 연관성이 깊다.

1.4. 愛情

濟州島 民謠에 있어 愛情을 노래한 民謠는 꽤 드물다. 단지 本土에서 유입되어 旌義縣廳 소재지였던 城邑을 중심으로 불리는 唱民謠인 <관덕정앞><계화타령><사랑가> 등에서나 愛情을 노래한 各篇이 있을 정도이다.

서우젯소리에 나타나는 愛情 문제는 임과의 이별을 중심으로 일부 各篇에 조금씩 삽입되어 있다.

(15) 임도싫경 나를도나 산넘어도	나젊은때 버리소서 산잇더라	물넘어도	물잇더라 [자료·10]
(16) 앞강에 임이나실고 뒷강에	뜬배는 가는배 뜬배는	임이나실고	가는배 [자료·19]
(17) 유정훈 소리나없이 설완훈 더구나	기차야 떠나거라 요내가삼 설완훈구나	간다간다 정든님 내가돌아를	내가돌아를간다 뒤를따라 간다 [자료·28]
(18) 당신ㅜ찌도 생각하는 돌아사면 내도번연히	냉정훈님을 내가잘못 잊을줄을 알건마는	옛날옛적 모도다잊어나	과거지사는 불리로그나 [자료·37]

(15)~(18)의 주제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別恨'이다. (15)에서 '산'과 '물'은 임을 상징한다. 임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산너머에도 산이 있는 것처럼 다른 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逆說이다. 즉 임만이 임이 아니라 다른 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떠나지 말라는 여인의 강한 主體的 愛情을 표현한 것이다. (16)은 배를 타고 떠나는 임에 대한 別恨을 소박하면서도 애절하게 노래한 것이지만, (17)은 떠나는 임을 따라 가겠다는 積極的 意志가 나타나있다. 이에 비해 (18)은 사랑을 했어도 사랑해 주지 않은 임에 대해 스스로 체념하면서 自慰하고 있다는 점에서 (16)과 상통한다.

2. 神풀이

본풀이는 神의 出生에서부터 神으로 좌정할 때까지의 來歷譚으로서 「노래부르기」와 「이야기하기」의 두가지 口演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巫歌 자료를 통해 확인

되는데, 본풀이 중 情的인 強調 部分이나 呪詞 및 祈願詞은 「노래부르기」로 구현되고, 이는 곧 노래로 분리되어 詩歌化할 가능성⁶⁸⁾이 짙다.

서우젯소리를 濟州島 巫儀에서 부르던 놀이무가였으나 원래의 기능에서 떠나 民謠化한 것⁶⁹⁾으로 보는 견해는 이런 論理를 바탕에 둔 것이다. 또한 서우젯소리에는 본풀이 辭說의 일부가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서우젯소리의 唱者가 심방이거나 一般庶民이라 하더라도 巫儀에 관련된 생활을 했거나 記憶力이 뛰어난 唱者는 본풀이의 사실을 일부 원용해서 부르고 있다. 이것은 神의 본(本)을 노래로 풀고 神을 놀임으로써 神으로부터 받는 재앙을 해소할 수 있다는 呪術的 의도에서 나온 결과다. 神의 본풀이 사실외에도 神名の 나열, 神의 外貌 및 <배방송>의 묘사등 巫儀와 관련성을 보이는 사실들이 서우젯소리에 삽입되어 있다.

이점에서 필자는 神의 본풀이 및 巫儀와 관련된 內容을 恨풀이와 대응시켜 <神풀이>란 용어를 썼다.

2.1. 神의 내력

(1) 김녕이라	송동지영감	굴골산산이	흐터농앙
봄을받은	조상이여	원액호던	즈상이여
충청도여산	광청고을	[청취불능]▽뜬	일월이여
여동지칩	떡넝애기	넉베물석에	놀던조상
신오월은	열사홀날	황에물석에	놀던조상
이구십팔	열요듭설에		[자료·1]
감테▽뜬	절박머리		

例謠는 治病儀禮인 祖上굿에서 祖上神(송동지영감, 광청애기씨) 본풀이가 끝난 후 가창된 서우젯소리로 본풀이의 내용이 압축되어 노래되었다. 송동지영감으로 일컬어지는 조상신은 구좌읍 동김녕리 宋氏집안을 중심으로 신앙되고 있는데, 본풀이의 主話素는 다음과 같다.

68) 玄容駿, “古代神話와 韓國文學의 源流”,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pp. 90~91.

69)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pp. 214~215.

- A. 송영감과 광청애기씨는 사랑을 나누다 헤어지게 된다.
- B. 광청애기씨가 물에 빠져 죽는다.
- C. 원한 맺힌 광청애기씨가 송영감 자식에게 의탁하여 병을 준다.
- D. 광청애기씨는 致祭를 받고 조상신이 된다.

(1)에는 본풀이의 話素중 B·C의 일부 사실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광청애기씨>가 恨을 품게 되고 조상신이 된 내력을 압축시켜 표현함으로써 맺힌 神의 恨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2.2. 神의 外貌와 舉動

(2) 아끈배에	놀던서낭	훼흔즈룩에	불을싸민
한강배애다	놀던참봉	어뜩호민	천릴가고
앞이망에는	청사조롱	어뜩호민	만릴가시던
뒷이망에는	흑사조롱	영급좋은	서낭님아
망만부튼	소패립에	어명국은	어디런고
짓만부튼	도폭입고	별파진이	뒤옴더라
훈뽀뽀	곰방대에	아방국은	어디런고
삼동초를	피여물고	진도야밤섬이	뒤옴더라

[자료·14]

(2)는 선왕참봉본풀이⁷⁰⁾의 내용 일부가 가창된 서우젯소리로 人格化된 영감(도깨비신)의 外貌와 舉動이 나타나 있다. 도깨비神을 높여 <영감>, <참봉>, <야채>(夜叉)라고 하는데, 이 神은 바다를 관장하는 神으로 어부들이 지성으로 모시면 豊漁를 가져다 준다고 하여 <서낭>(船王)이라고도 한다. 도깨비神은 원래 잘 먹으면 잘 먹은 값하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하는 富神⁷¹⁾으로 그 信仰의 범위가 확대되어 집안의 守護神, 대장간의 神, 部落의 堂神으로 모시기도 한다. 또한 도깨비神은 '영급(靈驗) 좋은 서낭'이지만 美女를 탐하는 好色性이 있어 海女나 美女에게 憑依하여 병을 주기도 한다.

70)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上揭書, pp. 538~539. pp. 93~95.

71) 文武乘, 上揭書, p. 44.

(2)와 같이 도깨비神의 外貌나 舉動을 描寫한 各篇으로는 [12][17][25][27]이 더 있는데, 描寫된 도깨비神은 한마디로 말해 괴상망측한 차림으로 非常한 外貌를 지녔으나 한 시간에 천리 만리를 가는 神通力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非常한 外貌와 神通力이 서우젯소리에서 노래된 것은 그 차림이 해학적이며 神通力이 과장 표현되어 있어 遊興을 고조시킬 수 있고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遊興과 웃음을 통해 生活苦에서 멎힌 恨을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3. 神名과 神놀림

(3) 동의와당	광덕왕놀자	동경국대왕	다놀고가자
서의와당	광신요왕놀자	세경국부인이	다놀고가자
남의요왕은	광덕요왕놀자	황제국태즈가	다놀고가자
북의요왕은	혹이요왕놀자		[자료·3]
요왕황제국	태즈님놀자		

巫儀에서 請神하여 좌정해 있는 諸神의 神名을 부르며 함께 놀아보자는 神에 대한 請願詞라 할 만하다. (3)과 같이 神名과 神놀림의 內容은 巫儀에서 가창되는 경우에만 序頭 部分에 共通적으로 나타날 뿐, 일반대중이 부르는 서우젯소리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內容은 巫儀에서 가창되는 서우젯소리가 呪術宗教的 機能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例이다.

2.4. 배방송(船放送)

(4) 떴네떴네	화룡선이떴네	진도바당	호매선이떴네
떴네떴네	호매선이떴네	떴네떴네	연락선이떴네
떴네떴네	화룡선이떴네		[자료·18]
떴네떴네	새우선이떴네		

巫儀인 治病굿이나 영등굿등이 끝난 후 送神을 의미하는 <배방선>(放船)을 한다. 神은 人格화된 神이기에 서우젯소리로 祭衆과 어울려 흥겨운 춤을 추며 즐긴 다음 배를 타고 떠나는데, 특히 도깨비 神을 태워 떠나보내는 배를 <도깨비퇴송선>(退

送船)이라 한다.

(4)는 ‘떴네떴네××선(船)떴네’라는 간결한 形式의 반복으로 바다에 떠 있는 <도깨비퇴송선>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이와같은 內容이 巫儀와 관련된 것임에도 巫儀型 서우젯소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일반대중이 부르는 遊戯型 서우젯소리에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배방송(船放送)은 神의 떠남을 의미하는데, 神의 떠남은 곧 神과 人間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神으로 말미암아 얻은 病, 즉 恨의 해소를 보여준다.

이상 살핀 神풀이의 內容은 文學的으로는 뛰어난 점이 없지만, 본풀이나 巫儀와 관련된 慣用的인 辭說이 서우젯소리에 원용되어 불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반대중의 恨을 해소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VI. 結 語

서우셋소리는 傳承의 多樣性和 巫儀와의 聯關性이라는 特性을 지닌 歌唱民謠로 庶民들의 生活와 共通心性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本稿는 서우셋소리의 性格, 類型, 形式, 內容을 중심으로 文學的 側面에서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濟州島 民謠에서 차지하는 位相과 實相을 파악해보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課題를 밝힌다.

1. 서우셋소리는 濟州島 全域에 걸쳐 널리 歌唱되는 民謠의 한 類型으로 巫儀의 〈석살림〉 祭次에서 專門的 職能者인 집방에 의해 歌唱되며 神놀림이라는 呪術宗教的 機能을 띠는 점에서 巫歌的 性格과, 노래와 함께 춤이라는 集團的 遊戯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遊戯謠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2. 서우셋소리는 通時的으로 보면 원래 巫儀에서 神을 놀리는 呪術性과 娛樂性을 지닌 춤이 巫歌였으나 民間에 전승되면서 非機能謠로 전환되어 춤과 함께 부르는 唱民謠이지만, 共時的으로 보면 현재 巫儀에서도 歌唱된다는 점에서 機能謠인 儀式謠의 性格을 띠고 있다.

3. 서우셋소리의 類型은 가락과 傳承樣相, 機能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巫儀에서 神놀림을 위해 集방이 부르는 巫儀型, 일반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 놀며 부르는 遊戯型, 김매는 작업에서 알꾼들이 勞動謠로 부르는 勞動型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勞動型은 서우셋소리의 悠長하고 빼어난 가락이 김매는 노래로 轉用되어 불린 전승의 특수한 경우로 기능상 김매는 노래로 봄이 타당하다.

4. 서우셋소리의 歌唱方式은 先後唱으로, I型: 序詞+後斂+本詞, II型: 本詞+後斂+本詞, III型: 後斂+後斂+本詞의 세 가지 形式에 따라 歌唱되는데, 그 중 I型이 本源的인 歌唱形式이다. 序詞는 序頭に 가창되어 歌唱動機를 밝히며, 先唱者가 북청을 가다듬고 後斂과 함께 가락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後斂은 行과 行 사이에서 정연하게 가창되어 本詞의 律格을 조절하는 調律的·休息的 機能을 갖는데, 2音步와 4音步 중 4音步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後斂은 聲音的 要素가 /ㅏ/와 /ㅓ/으로 구성되어 다른 音素와 響聲의 調和 및 感興과 餘

韻性を 높여 遊興을 고조시키는 데 적합하다.

5. 서우젯소리의 律格構造는 유연한 춤 동작과의 깊은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悠長한 느낌을 주는 4音步가 基本律格을 이루며, 이것은 2音步가 대응 연접된 4音步와 叙述의 폭이 확대된 4音步로 세분된다. 2音步는 2音步 대응 연접 4音步의 前2步와 後2步가 分化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춤 동작의 급격한 전환을 유도한다. 3音步는 2音步와 4音步가 變異되어 노래의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타나는 變異律格이다.

6. 後敎과 함께 民謠形式의 二代特徵인 反復技巧는 주로 語彙反復과 統辭反復이 혼합되어 다양한 技巧를 보이는데 語彙反復은 AAXA型, XAXA型, XAXB型, 通辭反復은 AAXA型, AB연속형, AXAX型, XAXB型, 특수형이 나타난다.

7. 서우젯소리의 內容은 크게 恨풀이와 神풀이로 구분된다. 恨풀이는 生活苦의 설움, 늙음과 죽음을 새롭게 인식한 데서 오는 신세 한탄, 享樂, 愛情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神풀이는 神의 내력, 神名과 神놀림, 神의 外貌와 舉動, <배방송>의 묘사가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韓國 民謠의 體系的인 研究 方法論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先學들의 研究 結果를 토대로 文學的 側面에서 서우젯소리의 實相을 고찰해 왔다. 서우젯소리는 가락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民謠인만큼 音樂的 側面의 研究가 先行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 서우젯소리와 濟州島 唱民謠의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巫儀와 연관성을 띤 本土 民謠 및 古代詩歌와의 比較 研究도 價値있는 研究 課題로 본다.

參 考 文 獻

○ 著書

1.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2. 國語國文學會, 「民俗文學研究」, 正音文化社, 1984.
3.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4. _____, 「濟州島民謠研究」, 도서출판 조약돌, 1983.
5.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6.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7. 白 鐵·金秉喆 共譯, 「文學의 理論」, 新丘文化社, 1982.
8.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9. _____, 「韓國民謠史」, 集文堂, 1981.
10. 張德順 外 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0.
11.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新丘文化社, 1982.
12. _____, 「高麗歌謠研究」, 새문사, 1982.
13.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81.
14.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15. _____, 「우리 문학과의 만남」, 弘盛社, 1981.
16. 千二斗, 「韓國文學과 恨」, 二友出版社, 1985.
17. 최철·실성경, 「民謠의 研究」, 정음사, 1984.
18. 「耽羅文化」(第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19. 黃淇江 外 2人, 「鄉歌麗謠研究」, 二友出版社, 1985.
20. _____ 外3人,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21. 韓國口碑文學會, 「韓國口碑文學選集」, 一潮閣, 1981.
22. 「韓國民俗學」, 韓國民俗學會, 1970.
23. 「學術調查報告書」6 (城邑里), 濟州大學國語教育科, 1977.
24. 「學術調查報告書」7 (德修里·納邑里),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

25. 「學術調查報告書」8 (郭支里·光令里),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4.
26.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27.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28. 「韓國民俗大觀」6 (口碑傳承·其他),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29.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esity press, 1973.
30. Johannes. C. H. R. Steenstrup, Medieval popular Ballad, University of washinton press. 1968.
31.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Marcourt. Brace & world, 1956.
32.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o 論文

1. 강경선,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1979.
2. 金起高, “嶺東地方 歲時風俗에 대한 研究”, 「江原民俗學」(창간호), 1983.
3. 金大幸, “高麗歌謠의 律格”, 「鄉歌麗謠研究」, 二友出版社, 1985.
4. _____, “抒情民謠의 構造的 特性”, 「국어교육」(36호)韓國國語教育研究會, 1980.
5. 김성례. “제주도 심방의 치병의례에 대한 연구시론”, 「濟州島研究」(第一輯), 濟州島研究會, 1984.
6. 김성배, “한국의 향두가 연구”, 「民俗文學研究」(국어국문학총서 8), 정음문화사, 1984.
7. 金榮敦, “城邑民謠의 實相”, 「濟州大學校 論文集」(第20輯), 1985.
8. _____,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9. _____, “濟州島 民謠 멧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82호), 국어국문학회, 1980.
10. _____,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關係”, 「濟州大學 論文集」(第10輯), 1978.

11. _____, “濟州島 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 「民俗文學研究」(국어국문학총서 8), 정음문화사, 1984.
12. _____, “濟州島民謠研究”, 「韓國言語文學」(제15집), 1977.
13. 文武秉, “濟州島 굿의 演劇性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14. 成基玉, “韓國詩歌의 律格體系研究”, 「서울대 국어국문학연구」(48호), 1980.
15. _____, “詩歌律格論”,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16.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2.
17. 芮昌海, “韓國詩歌 韻律의 構造研究”, 「成大文學」(19집), 1976.
18. 尹致富, “韓國 자장가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19. 李輔亨, “民俗藝術”,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島篇), 문화재관리국, 1977.
20. 임재해, “時用鄉樂譜 所載 巫歌類 詩歌 研究”, 「영남어문학」(제9집), 1982.
21. 趙東一, “現代詩에 나타난 전통적 율격의 계승”,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弘盛社, 1978.
22. 玄平孝 外 7人, “耽羅精神 探究”, 「濟州大學 論文集」(제21집), 제주대학, 1979.
23. 玄容駿, “處容說話考”, 「民俗文學研究」(국어국문학총서 8), 정음사, 1984.
24. _____, “濟州島의 영등굿”, 「韓國民俗學」(창간호), 한국민속학연구회, 1969.
25. _____, “古代神話와 韓國文學의 淵源”,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26. _____, “濟州島 巫神의 形成”, 「耽羅文化」(제1집), 耽羅文化研究所, 1983.
27. _____, “濟州島 巫俗儀禮研究”, 「濟州大學 論文集」(제6집), 1974.

Abstract

A Study of Söuje-sori a Folk song in Cheju Island

Pyön Söng-gu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don

I think Söuje-sori, a folk song in Cheju Island, is widely reflecting common people's life in the Island and their common mentality as a characteristic which has much to do with various traditions of Cheju Island and exorcism rite.

This treatise shows the phase and real fact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type, form and contents in the song in the literary field, that hold in traditional folk songs of Cheju Island.

Description in front of the treatise can be conclusively summarized as the following seven items and the forward subject to study more deeply about the song is also described as the following.

1. Throughout Cheju Island Söuje-sori has been sung as a type of folk song by exorcists, professional and functional men or women, so called Shimbang, in 'Söksalim' that is a kind of ritual process of exorcism. (Exorcists are called 'Shimbang' in Cheju Island) And in the view point that it cherishes a religious and incantational function, it carries a characteristic of exorcistic songs, at the same time it has a characteristic of amusement and ballad in a viewpoint that it cherishes interest and amusement of a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6.

group dance so called 'Chum' with various folk songs.

2. In the diachronic aspect it is thought that Sōuje-sori was sung as songs of exorcists carrying incantational function and entertaining function.

However I think it was turned into a non-function folk song in the process of being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nd gradually has become common people's song just for the sake of their entertainment without incantational function, in the result.

But in the synchronic aspect I think of the song as a exorcistic, ritual folk song with exorcistic function in a viewpoint that the song has been sung in the exorcizing ceremony until now.

3. Classifying the type of Sōuje-sori according to its melody, handed-down-way, and function, it can be put into the form of healing rite in which exorcists sing in order to entertain god in exorcizing rite, the form of the amusement in which common people sing for enjoyment of their life, and labor form in which workers sing when they weed on the farm.
4. Its singing style is composed of three sorts of formulas.

Formula I. Prologue+Refrain+Main librettos

Formula II. Main librettos+Refrain+Main librettos

Formula III. Refrain+Refrain+Main librettos

According to the above three formulas, Formula I is a singing style of its originality.

The motive of its singing is classified in the prologue. I think the prologue, sung by first singer who cleared his throat, has function to control the whole melody-tone when it is sung.

The refrain has the function of rhythm-control and rest that arrange the rhythm between each line. It is mainly composed of two meter and four meter.

5. Sōuje-sori's rhythmical frame is based on the four meter-rhythm, which give us soft and enchanting feeling an account of its relativity with dancing

movements.

The four meter-rhythm is classified into two kinds of forms. One is the four meter-rhythm composed of confronted, doubled two meter-rhythm and the other is the four meter-rhythm enlarged the width of description.

It is general that two meter-rhythm usually appears in the result of that four meter-rhythm divided into the front two meter-rhythm, and the post two meter-rhythm.

Three meter-rhythm is a varied rhythmical frame into which changed two meter-rhythm and four meter-rhythm and four meter-rhythm appears here and there in the song.

6. Repeated artifice, that is one of the two obvious features with the refrain part in the form of folk song, mainly shows repeated forms of vocabularies and phrases, which are usually mixed up. The form of repeated vocabularies is showed AAXA type, XAXA type and XAXB type, the form of repeated main phrases AAXA type, AB successive type, AXAX type, XAXB type and special type.
7. I greatly divide the Sōuje-sori's verses into two parts, one of which is 'Shin-puri'(narrating the history of god) and the other is 'Han-Puri'(dispelling one's grief) The main contents of 'Shin-Puri' is made up of god's history, entertaining god, the action and the figure of god, and 'Paibang-song'(Taking god on the small model ship and seeing it off) The main contents of 'Han Puri' is composed of librettos depicting enjoyment and love, sadness of enjoyment and love, sadness of hard life, deploring of common people's adverse circumstances derived from newly recognizing being old age and death.

서우젓소리 活用資料 目錄 및 蒐錄文獻

9. 活用資料 目錄

자료 번호	조사지역	제 보 자	조사일시	조사(채록)자	수북문헌번호	비고
1	구좌읍 행원리	이승춘(남·50)	1982. 1. 1	고 광 민		조상굿
2	조천면 함덕리	박인주(남·65)	1984. 3.16		5:418-424	추는굿
3	조천면 북촌리	박인주(남·65)		현 용 준	4:540-542	영등굿
4-5	조천면 함덕리	박인주(남·64)	1983. 3.23	고 광 민		영등굿
6-7	조천면 함덕리	박인주(남·65)	1984. 3.14	고 광 민		추는굿
8	조천면 함덕리	여 부	1984. 3.14	고 광 민		추는굿
9	성산읍 오조리	김순우(여·68)	1985. 8.22	변 성 구		
10	구좌읍 동김녕리	양승우(여·61)	1979. 4. 8	김영돈·현용준	1:236-242	
11	제주시 삼도동	이여수(여·55)	1980. 9.25	김 영 돈	2:482-486	
12	제주시 삼도동	김영부(여·54)	1980. 9.25	김 영 돈	2:482-486	
13	제주시 삼도동	이옥희(여·57)	1980. 9.28	김 영 돈	2:523-524	
14	제주시 삼도동	김영부(여·54)	1980. 9.25	김 영 돈	2:591-596	
15	표선면 성유리	홍순원(남·46)	1981. 5.17	김 영 돈	3:574-576	
16	안덕면 덕수리	양성생(여·72)	1981. 7.14	김 영 돈	3:789-790	
17	대정읍 하모리	김영부(여·55)	1981. 8.12	김영돈·변성구	3:1032-1037	
18	대정읍 신평리	현신생(여·81) 강은반(여·76)	1981. 8.12	김영돈·변성구	3:1083-1084	
19	서귀포시 색달동	김인자(여·43)	1984. 8.16	변 성 구		
20	서귀포시 색달동	강성옥(여·83)	1984. 8.16	변 성 구		
21	서귀포시 예래동	현옥련(여·41)	1982.11.14	변 성 구		
22	서귀포시 예래동	문복순(여·57)	1982.11.14	변 성 구		
23	애월읍 동귀리	김천일(여·70)	1981. 8.14	변 성 구		
24	한림읍 협재리	홍정량(여·64)	1981. 8.14	변 성 구		
25	한림읍 월림리	김정호(여·80)	1982. 1. 2	변 성 구		
26	한림읍 월림리	김정삼(여·83)	1982. 1. 2	변 성 구		
27	한림읍 월림리	윤신선(여·62)	1981. 9.12	변 성 구		
28	한경면 고산리	좌봉원(여·70)	1981. 8.13	변 성 구		
29	한경면 고산리	박성춘(여·59)	1981. 8.13	변 성 구		

자료 번호	조사지역	제 보 자	조사일시	조사(채록)자	수록문헌번호	비고
30	한경면 용수리	이화규(여·61)	1981. 8.13	변 성 구		
31	제주시 건입동	김화일(남·65)		김 영 돈	6:394	
32	제주시 용담동	안사인(남·53)		김 영 돈	6:394	
33	대정읍 동일리	이을성(여·77)		김 영 돈	6:394-395	
34	안덕면 동광리	강경아(여·62)		김 영 돈	6:395	
35	제주시 삼양동	강제운(여·70)	1981.12.15	변 성 구		
36	제주시 삼도동	김주옥(여·58)	1981. 8.10	변 성 구		
37	구좌읍 동김녕리	김경생(여·56)	1985.11. 9	변 성 구		
38	구좌읍 동김녕리	김경생(여·56)	1985.11. 9	변 성 구		
39	남원읍 하례 1리	현갑봉(여·58)	1981. 8.10	현용준·고광민	3:1175-1177	
40	남원읍 하례 1리	현갑봉(여·58)	1981. 8.10	현용준·고광민	3:1178-1182	

○ 蒐錄 文獻

1. 「韓國口碑文學大系」9-1(濟州道 北濟州郡 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 「韓國口碑文學大系」9-2(濟州道 濟州市 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3. 「韓國口碑文學大系」9-3(濟州道 南濟州郡 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4.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5. 「濟州道研究」第1輯, 濟州道研究會, 1984.
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島 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서 우젓 소리

[1]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1982.1.1.,

고광민 조사.

이중춘, 男 · 50.

1. 어야에어야어야	어야로방에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원액 흐던	조상이여
일월이놀자	제석이놀자	(청취불능) ㄱ뜨	일월이여
삼만관수가	놀고가자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넉베물석에	놀던조상
짐선달은	홍베일월	황베물석에	놀던조상
일월조상에	놀고싶소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고리비단	능나부에
산신일월에	놀고갑서	놀던일월에	놀고싶소
산신백관에	놀고갑서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송동지영감	몸을받은
김녕이라	송동지영감	상선중선하선에	놀던선왕이여
몸을받은	조상이여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이물받은	서낭이여
충청도여산	광청고을	고물받은	서낭이여
여동지첩	뜨님께기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마까후예	토시연분
신오월은	열사홀날	칙장낭에	용도머리
이구십팔	열오둑설에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아 - 아아아야	어야어에요	놀던	서낭님도
감테 ㄱ뜨	절박머리	므친간장이랑	다풀려놉서
골골산산이	흐터놓앙		

[4]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1983.3.23.,

고광민 조사.

박인주, 男 · 64.

2. 어기여차	어향어향	추춧관탈	놀던게기
어향어향도	방혜로놀자	정어리멜록	이루꾸멜복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놀다가자	놀다가자	영등하르바님	영등할마님
저돌이지도록	놀다가자	뒤티장항	실것수다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칭취불능]		천초메역	고동생복
천초메역	고동생복	너울너울	넙넙물키워가듯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먹을연도	나수와줍서	하나만테건	웨방사리 [칭취불능]
입을연도	나수와줍서	기엄나게	시켜줍서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끈여점살여	시방여에	뻔랑기리건	흔뻔후린질나건
천초메역	고동생복	흔상항	ㄱ득흔계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종지만씩	사발만씩	먹을연나습서	입을연나습서
양분이만씩	도고리만씩 [웃음]	야기덜키웁게	나수와줍서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씨뿌림 제차후 다시 노래]

[5]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1983.3. 23..

고광민 조사.

박인주, 男 · 64.

3. 어기여차	어향어향	씨부췌구나	씨부췌구나
어향어향도	방혜로놀자	이제 ㄱ장	고생흔명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놀다가자	놀다가자	설운정네야	[칭취불능]
불쌍흔정네덜도	놀당가자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흔질두질	지픈물에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불쌍흔정네덜	고생덜ㅎ멍	[칭취불능]	물질ㅎ곡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요런고생덜	다ㅎ여가멍
우는애기	버려두고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젓엿애기	다떨어두곡	[칭취불능]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맷힌간장을	다풀려놀자
동경국은	[칭취불능]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세경국은	곶은새여	영등대왕	영등벨감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영등좌수덜도	다놀고갑서
조반밥끓고	점심밥끓엄	아하아하양	에헤에양어허어용
ㅎ루삼시	다끓으멍		

[6]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1984.3.4.,
고광민 조사.
박인주, 男 · 65 .

4. 어기여차	살강기로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일천간장을	다풀려놀자	설운애기야	설운정네야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스물흔설	놀당가라
진바당에랑	진소리로놀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썩른바당에랑	썩른소리로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설운애기야	널낳던날은
천금상에	대왕이놀면	해도돌도	없는날이던가
백금상에	요왕이놀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예수민어근	천당갈걸
수정국대왕이	놀고자ㅎ면	불교민어근	극락을갈걸
수정국부인도	다놀고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설운정네야	불쌍흔애기야
요왕황제국	놀다가면	총각머리	등에지고
태즈님도	놀고나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초전썩팔즈	다그르썩구나
청요왕이놀면	백요왕이놀고	불쌍흔정네야	놀당가라
백요왕이놀면	흑요왕이놀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불쌍도 호고	적막도 호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가련도 호고	칭원도 호네	제주나는	고동생복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우미전각	ㄱ득실코
산으로가민은	산신이높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물르문가민은	요왕이높고	산으로가면	초기진상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중으로가면	맹유지실코
배문가민은	서낭이높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제청아래는	스물흔설날자	[칭취불능]	쫄실러라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푸나부장작	듬뿍실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넋넋구나	흔넋구나	한뫼잡아라	상대마지에
그때그뒤에	[칭취불능]	허리마지	참봉머리영감머리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일삼설육	엇는디가고	한뫼달고	중뫼달고
사오부친홀터	가아선	영기당기도	다불려놓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그때그때	넋드리명	처음올때	부사거면 ㄱ람신고
푸넘이나	ㅎ엇내민	들뫼나진	만경창과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성네인생	아니막고	산천도좋고	항구도좋고
조전썩이나	안그르칠걸	포구도존덜로	배질허라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설운애기야	올어보라	북남동너덜	노는덜로
산천도올고	조목도우네	북남동너덜	노는덜로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스물흔설	올어가난
이벨이벨	영이벨홀때랑	선주도우고	사공도우네
상선무어	다려보내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환자는 巫樂에 맞추어 계속 춤을 추다 잠시 휴식을 취함.
심방의 권유로 다시 춤을 춤]

[7]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1984.3.14.,

고광민 조사.

박인주, 男 · 65 .

5. 어기여차	어향어향	[환자 춤추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함]	
어향어향도	방혜로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돈아돈아	말물큰돈아
쫓른바당에	쫓른소리로놀고	개주어도	아니틀어먹는금전
진바당에	진소리로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청취불능]	돌고도는금전
산으로가민	산신이놀고	요놈의금전	무정하구나
물르곤가민	요왕이놀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요놈의금전	별레갓단
배론가민은	서낭이놀고	내일망쳐라	내일음망치
제칭아래는	스물흔설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설운정네	스물흔설
설운애기야	놀당가라	일천간장	다풀러놀자
불쌍하다	적막하다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스물흔설이	울어가난
어떤사름은	팔조종앙	느네어명도	잘도나우네
고대왕실	드노픈집의사는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설운애기가	울어가난
스물흔설팔조	어떤날에	산천도울고	초목도우네
해도돌도없는날	나를낳나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이벨이벨	영이벨흔철희난
불쌍도흔여라	불쌍도흔여라	선주도울고	사공도우네
적막도하다	불쌍도하구나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산도넘엄	울고나가소
		물도넘엄	울고나가자
부미친척엇는디	금전파러갓단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듬뻍하니	벙이들고	일가친척	없는애기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설운아방	[청취불능]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어허호놀래로	놀고나가자
내몸아내몸아	어뉘간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자곤자곤	부수깨물어강	진막당에	진소리로놀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조년남에	춤신구름밟음	쫄뜰바당에	쫄뜰소리로놀자
말년남에	다흐터뵈네	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감태구름	춤사머리		[巫樂과 歌舞가 절정에 이른 후 고침.]
물물산산	다흐터놀고		女坐가 노린 가락으로 다시 노래를 시작함]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8] 북제주도 조선민속학연구소, 1984.3. 14.,

고령민속조사,
女坐.

6. 어기어차	어향어향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어향어향도	방대로놀자	어뵈호탄	뵈도나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어뵈호탄	훈도나고
진소리로놀자	쫄뜰소리로놀자	어허어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살운애기	춤으로놀자	얼굴습나	쟁겼구나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밧음습나	쟁겼구나
아부대도	놀고나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아부대도	살행구완호센	니도척너	나도나중각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뵈년삼자고	인약이더냐
진막당에	진소리로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쫄뜰바당	살쟁기로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동터과당	광덕강놀자
		서리과당	광덕진왕놀자
불쌍호질네	가린호질네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원동호질네	불쌍호아기	물물산산	흥진어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배운산산	진당이놀자
돈아돈아	말모리돈아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금전떨란	치울모가난	참으로가난	참진이놀자

바다문가난 요왕이놀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낮도영청 놀당가게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돌을세민 영등이월
열이들날은 이돌열이들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이삼스월 보내면서
승하시를 기달리고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너도이별 나도이별
실운애기여 귀신광생인 곱갈롭서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밤도영청 놀당가게

[심방의 무악에 맞추어 도랑 춤을 춤]

어서놀당 이별 흥게
어서나놀당 작별 흥자
아하아하양 어허어양어허어요
불쌍하다 어서가자
불쌍하다 어서가자

[巫樂과 歌舞가 빨라지며 절정에 이르면 노래는 끝나고 춤만 계속되다 그침]

[9]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1985.8.22.,
변성구 조사.
김순우, 女·68.

7. 어양어허양 어야로구나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흔믈놀랑 놀고나가지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노피나떠라 산신어요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나두야떠라 요왕대신어요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지픈바당에 놀던서낭님아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오피른바당에 놀던서낭님아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어야차소리에 배올려간다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뒤야차소리에 닳땡겨간다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허릿대밧디 화정애기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고물에는 고사공이로고나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이물에는 이사공이여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어야차소리에 흔믈놀자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뒤야차소리에 놀고나간다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우밧덕에 붉은 서낭님아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메역덕에 솔진 서낭님아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동바당	관중물집의 놀던서낭님아	이물에 놀던도	서낭이여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아하아용	에에용에용
서바당집게다	관중물드래 놀던서낭	고물에 놀던도	서낭이로고나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불쌍하나	적막도하다	놀고가자	초상님을 불령간다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아하아용	에에양에용

[19] 서귀포시 색달동, 1984.8.16.,

변성구 조사.

김인자, 女 · 43.

8. 어허야	서낭이로구나	쉴물나민	동의와당
아아양	에에에에요	들물나민	석의와당
간다간다	내가돌아를 가는구나	아아양	에에에에요
아아양	에에에에요	인자가면	언제오나
앞강의	뜬배는	웁마나를	기다리소
입이나실고	가는배	아아양	에에에에요
아아양	에에에에요	가면가고	말년말지
뒷강의	뜬배는	실신을살고서	왜가느냐
입이나실고	가는배	아아양	에에에에요
아아양	에에에에요		

[20] 서귀포시 색달동, 1984.8.16.,

변성구 조사.

강정옥, 女 · 83.

9. 어야디야	서낭이로구나	뒷강의	뜬배는
아아양	에에에에요	낙수질	배로타
앞강의	뜬배는	아아양	에에에에요
입이나실고	가는배	물때점점	늦어간다
아아양	에에에에요	아아양	에에에에요

고물에는	고사공아	아아양	에엥에에요
아아양	에엥에에요	썰물나민	서의와당
이물에는	이 사공아	아아양	에엥에에요
아아양	에엥에에요	들물나민	동의와당
허릿대밧되	화장애야	아아양	에엥에에요

[21] 서귀포시 예래동, 1982.11.14.,
 변성구 조사.
 현옥련, 女 · 41.

10. 떳네떳네	화룡선이떳네	아하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하항아야	에에영에에요	높은산성산포	배로서낭솔나무
높은산성산포	배로서낭솔나무	아하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하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싫거든두어라	너혼자뿐이나
가면은가고요	말면은말았지	아하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하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어여차소리에	놀고나갑시다
싫거든두어라	너혼자뿐이나	아하양아야	에에영에에요

[22] 서귀포시 예래동, 1982.11.14.,
 변성구 조사.
 문복순, 女 · 57.

11. 떳다떳다	화룡선떳구나	아양아야	에영에요
아양아야	에영에요	물결이 치터나	파도야 치느나
어기여차소리에	놀고나갑시다	아양아야	에영에요
아양아야	에영에요	썰물나면	동의나와당
저산에 뜬돌은	산도넘고 물도넘건만	아양아야	에영에요
아양아야	에영에요	들물나면	서의와당 남의와당
바람아 불어라	휩바람아 닳지워라	아양아야	에영에요

[23]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1981.8.14.,
 변성구 조사.

김천일, 女 · 70.

12. 떴다떴다	호매선이나떴다	[너부 재우다게. 아너 재우다. 재지 아너 호여]
아하양아야	어허영어요	무성세월
떴다떴다	군대환이떴다	한허리에간다
아하양아야	어허영어요	아하양아야
간다간다	내가돌아간다	우리가살면은
아하양아야	어허영어요	아하양아야
떴다떴다	지저리가떴구나	우리가죽으면
아하양아야	어허영어요	아하양아야
우리가살면은	언만이나살리	우리가살면은
아하양아야	어허영어요	아하양아야
별수도 좋고	산도나 좋다	막상막살앗자
아하양아야	어허영어요	아하양아야

[24] 북제주군 한림읍 힘재리, 1981.8. 14.,
변성구 조사.
홍성람, 女 · 64.

13. 떴다떴다	호매선이나떴구나	아앙아요	에엥에요
아앙아요	에엥에요	내년삼월	봄은오면
어기여차소리에	배넘어간다	꽃도피어	만발하고
아앙아요	에엥에요	아앙아요	에엥에요
어가낭청	방하로구나	앞도피어	번성이
아앙아요	에엥에요	아앙아요	에엥에요
산천의귀훈건	밀구나부드래	다시오기는	만부나하고
아앙아요	에엥에요	아앙아요	에엥에요
인간의귀훈건	임이로고나	징원호나	생각호나
아앙아요	에엥에요	아앙아요	에엥에요
멧사십리	해당화야	어가낭청	방하로구나
꽃진다고	설워마라	아앙아요	에엥에요

[25]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1982.1. 2.,
 변성구 조사.
 김정호, 女 · 80.

14. 영감님도	도롱탕하 자	움숙치만부튼	집 새길 신고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요
뗏다뗏다	정강선뗏다	흐뽀못흐	곰방대에 담배를피우며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뗏다뗏다	호매선뗏다	흐시간에	천리를가고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뗏다뗏다	거북선뗏다	두시간에	만리를가고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흐뽀못흐	곰방뎀물고	어멍국은	벨패장이여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깃만부튼	도꼭을입고	아방국은	송기장이여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26]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1982.1. 2.,
 변성구 조사.
 김정삼, 女 · 83.

15. 우리나라도	어디를가랴	쟁길쳐도	존딜로간다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고대광실	노픈집으로간다	태역단풍	존딜로간다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이불자리	존딜로간다	대정침엔	놀기존딜로간다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허멍석은	붉은딜로간다	청수당떨은	무웨뽀롱이여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웃니사발	드른딜로간다	조수낙천은	지름줄래기여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우리나도	어딜로가랴	우리나도	어딜로가리요
아아야	에에용	아아야	에에용

숫불메	흔는딜로가는다	불메불엄	담배나먹나
아아아	에에용	아아아	에에용

[27]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1986.9.12.,
 변성구 조사.
 윤신선, 女 · 62 .

16. 망만부튼	대패립을씨고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요빳검질	흔저 나매여보자
짓만부튼	맹지도폭을입고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떳네떳네	화룡산이가떳구나
허리만부튼	치메 자락을둘러씨고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떳네 떳네	한로영산이떳네
각만부튼	초신을신고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떳네떳네	망오름이나떳네
떳네떳네	화룡산이가떳구나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아앙아하	에에영어어용	떳네떳네	한로영산이떳네
떳네떳네	북망산이가떳구나		

[28]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981.8.13.,
 변성구 조사.
 좌봉현, 女 · 70 .

17. 떳다떳다	전등선이가떳다	아앙아아	에에 영에에요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새길난바다에	통통배가떳구나
무정세월아	가지틀말아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육각정아래다	발동기가떠온다
떳구나	떳구나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우리가요렇게	놀다가죽어지면
차귀도앞바당에	화룡선이가떳구나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만사허사	젊어신때 놀아보자
뜨엇다뜨엇다	둥둥새별이 뜨어온다	아앙아아	에에영에에요

잘살아도	제 팔재여	더구나	설완 허구나
못살아도	제 팔재여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간 — 다	간 — 다
흔번 ㄱ찌	둥글둥글 놀다나가자	내가돌아를	간 — 다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저산천에	푸숲새는	정든님	뒤를따라
년년마다	젊어온데	내가돌아를	간 — 다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유한	청춘은	창밖의	우는새는
소곡소곡	늪어간다	산란도	허더니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간다	못간다	등끝에	소년덜
내가얼마나	울엇던고	유정도	허구나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자구내	포구에	심 — 정	디덜적
눈물로다	한강수여	때릴줄만	알앗것지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무정 —	세월아	깊은정	디릴줄은
갈라면	너만가지	하낫도	물랏네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너무야	아깝은청춘	우동동	꿀려라
왜나데리고	가는가	발바디나	보 — 자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이팔 —	청춘아	허우덜씩	웃어보라
백발을	회롱말아	이빨이나	보 — 자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어제청춘	오늘백발	어여쁜	큰아기들
그거얼마나	가련한고	임의품에나	노는다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유정훈	기차야	정칠월	복성은
소리나없이	떠나거라	볶어야만	맛이있고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영에에요
설완훈	요내가삼	큰아기	얼굴은

몬딱지나	이쁘구나	아양아야	에에에에에요
아양아야	에에에에에요	사람은	늑어지면
호박은	늑으면	뵈기만	싫더라
맛이나	좋건만	아양아야	에에에에에요

[29]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981.8.13.,

변성구 조사.

박성춘, 女 · 54 .

18. 가뵈시다	가뵈시다	사십팔원	세우시며
좋은국으로	가뵈시다	구뵈연대	버리시자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천상인간	다버려두고	살았다고	좋아말고요
극락으로	가뵈시다	죽었다고	설워마소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극락이라	호는곳은	만고제왕	호걸덜도
온갖고통도	전연없고	영영이길을	가고만다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황금으로	땅이뵈고	이산저산	피는곳은
연꽃으로	집이뵈여	해년마다	피건마는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미타불	주인이뵈고	우리인생	호번가민
관음세지가	부체뵈야	다시오기는	어렵더라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사십팔원	세우시며	상하도다	우리신도
구뵈연대	버리시자	허송세월을	호지말고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반하용선	내여보내	호루바뵈	아미타불
염불충성	버리시자	유심정토	어디던고
아아양	에에에에용	아아양	에에에에용

[30]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1981.8.13.,

변성구 조사.

19.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지전천냥	은전만냥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돈만냥을	실어놓고
요배를	타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어드로나	갈 - 까	한국토는	다먹고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만주로나	가볼까
썰물나민	서의와당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들물나민	동의와당	한국은	만주땅보단도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부제나라가	똥엿다
마프름이	불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비양도로	갈 - 까	아부들로	가서도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대한민국	못이긴다
하늬브름이	불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가파도로	갈 - 까	허릿간에	화정아야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물때점점	늦어간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고물에는	고사공아	저배를	타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차귀섬으로	갈 - 까
허릿간에	화정아야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물때점점	늦어간다	저좁수덜	타거든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만선을	향고오자
요배를	타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부제나라로	갈 - 까	우리용수	떠날적인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만스를	해결하자
우리한국은	오고보니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가난훈	한국이라	우리용수	부제를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맨들아두고	나아가자
산방네기가	불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만주로나	갈까나	한똥물길로	가면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어들로	갈줄몰라서
요배에	실은것은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무엇을	실렀나	인정을	많이신경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어들로나	갈 - 까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가과도	해너선뉘로
가코야	불 — 까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어드로	가면은
물진이	발르코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썰물나건	동의와당
들물나건	서의와당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하영먹센	추즈관탈로 갔더니
이똥살을	걱정이라
아하아양	에에영에에용

[35] 제주도 삼양동, 1981.12.15.,
 변성구 조사.
 장계운, 女 · 70.

20. 어향어허야	방해로놀자
아아아양	에에에용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리라
아아아양	에에에용
선흠끗던	아기씨만 서낭이라
아아아양	에에에용
대징끗던	도련님만 서낭이라
아아아양	에에에용
똥다똥다	호매선이나똥다

아아아양	에에에용
부산이라	영도섬으로
구경가기 가	어찌허리요
아아아양	에에에용
부산영도섬	좋다해도
서울이라	삼각산으로
아아아양	에에에용
놀아놀아	젊어서 놀아
늙고똥들민	못노리라
아아아양	에에에용

[36] 제주도 삼도동, 1981.8.10.,
 변성구 조사.
 김수옥, 女 · 58.

21.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허릿대밧디	화정아여

물때점점	늦어나진다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똥다똥다	조기선똥네
일선바당에	조기선똥다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산은첩첩	천봉인데

물은출랑	황하수로다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유운 날만날	좁 잘새 으시
우리어멍	날날을적인	허벅장단에	유가라기여
재수도으시	날날아놓앙	아아양	에에영어어용

[37]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1985. 11.9.,
 변성구 조사.
 김경생, 女 · 56.

22. 어양어영	어양어영	한로산으로	느리 는물은
어기야디아	방헤로놀자	일천나무돌고	다씩은물이며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놀당가자	자다근가자	산지로나	느리 는물은
저 돌이 지도 록	놀당가자	일천대팍줄	다씩은물이며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우리가살민	멧백년사나	요내눈으로	느리 는물은
막상막살아도	단팔십이여	일천간장도	다씩은물이며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뱅든날즘든시	다떼여불면	저 산뒤에	낭지레가난
단스 십도	못사는구나	짐패 풀란	못지더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놀기존맨	이 십세요	길주맹천	골패 장쉬
살기존맨	삼십세라	뚝이울건	질행을마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스 십마흔	오십원뻘면	뚝이울건	질행을마라
늙어지면	못노리로다	뚝이아닌	인뚝이더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가면 가고	말면은말지	모살방군	신김치담앙
초신을신 고서	시 집을가리야	어신부모	발어름소리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하늘로라	느리 는물은	어신부모	발어름소리
중녀시녀도	발싯인물이며	지애지봉	울리더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석섬솔에	니 ㄱ튼동심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어디жат단	니 태여난디	우리아인생은	토란잎의이슬이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흔번는착	죽어지면
당신 ㄱ찌도	냉정 훈님을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생각흔는	내가잘못	흔번는착	죽어야지면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또다시울출을	모르는구나
돌아사면	잇을 풀을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내도변연히	알건마는	석탄베탄	타는배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연기나풍풍	나건마는
옛날옛적	과가지사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모도다잊어나	불러로고나	요내간장	타는배는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연기도짐도	왜아니나나
멩스십리	해당화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꽃진다고	설워마라		

[38]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1985. 11.9.,

변성구 조사.

김경생, 여·56.

23. 어향어향	어향어향도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어기야디아	방혜로구나	이물에는	이사공아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고물에는	고사공아
풍년왔구나	풍년왔구나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논쟁이와당에	돈풍년왔구나	허릿대밧되	화장아야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물때점점	늦어간다
산엔가난	산신서낭	아하아하양	어허어허양어허어요
물엔가난	용궁서낭		